

성도의 빛 6

1989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성도의 빛

1989년 6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앨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76권, 제31권, 제6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9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06KO
PRINTED IN KOREA 6/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관장단 메시지 :

- 2 그리스도를 생각함.....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6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유산.....시드니 스미스 레이놀즈
- 10 아낌없이 내어 줌.....아이잭 시 퍼저슨
- 18 브리감 영 초기 시절.....에스 딜워스 영
- 25 우리의 영적인 이론.....테리 쟁크스
- 26 나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클로드 버나드
- 28 내 나라 국민에게 복음을 전함.....마빈 케이 가드너

방문 교육 메시지 :

- 36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 37 다시 찾은 챔피언.....켄드라 카슬 페어

물론 메시지 :

- 43 지도력에 관한 메시지

청소년란

- 45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러셀 시 테일러 장로
- 47 빨간 코트.....비바 메이 갬멜 윌콕스

어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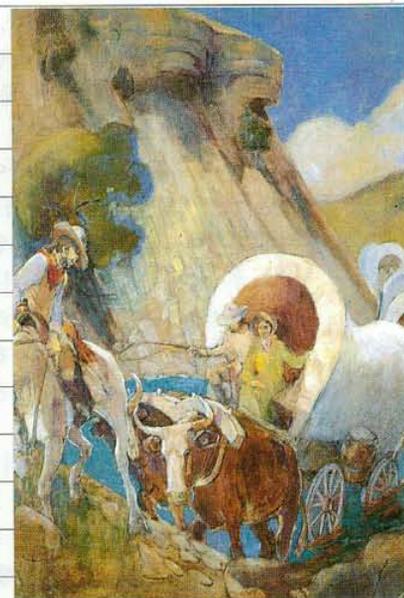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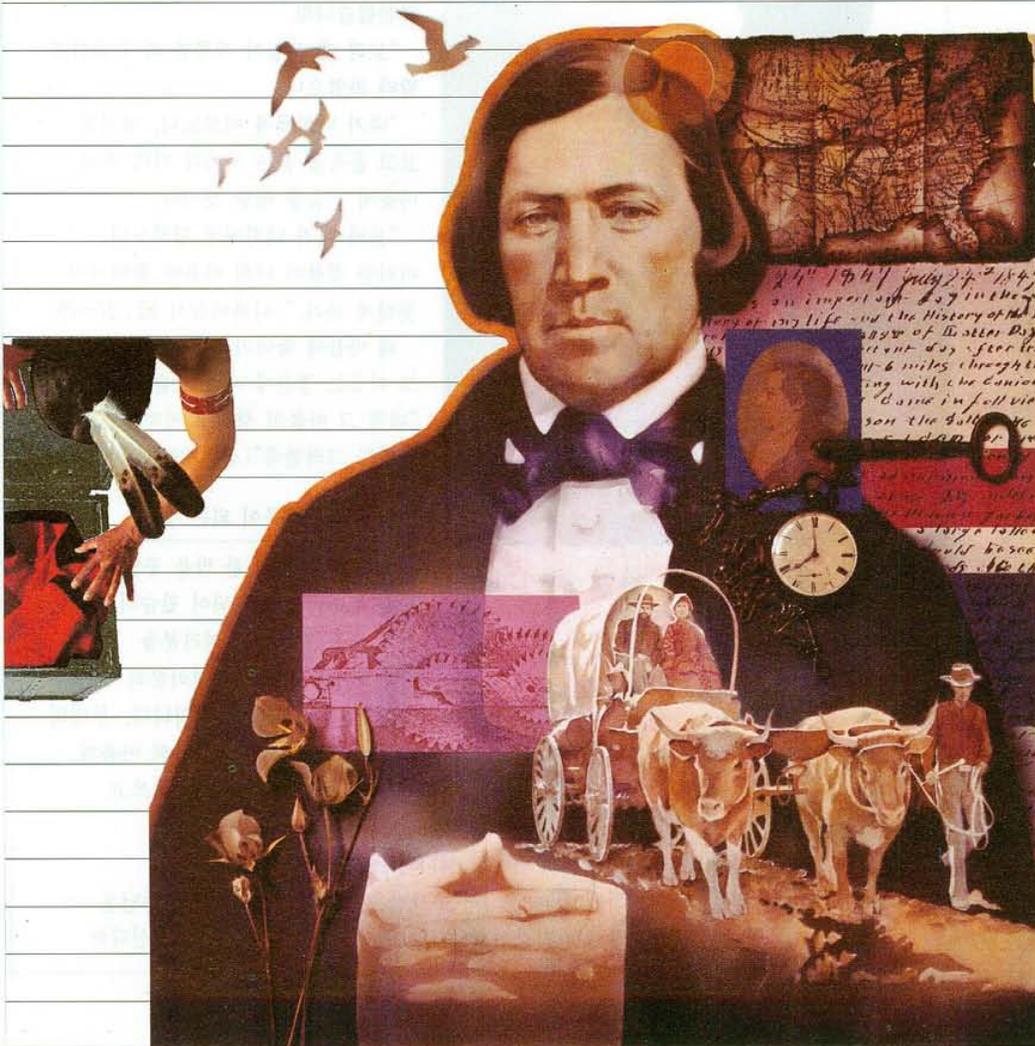
- 51 구름.....크리스티 몬슨
- 54 성신의 은사
- 55 그린 플레이크 흑인 개척자.....제인 맥브라이드 초트
- 57 심심풀이

58 교회 및 지역 소식

표지: "서부로 가는 길" 해롤드 아이 홉킨슨. 이번호에 실린 기사에는 오늘날의 말일성도들의 추억과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개혁 정신이 실려있다.



Unit 10



그리스도를 생각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조 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소년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경험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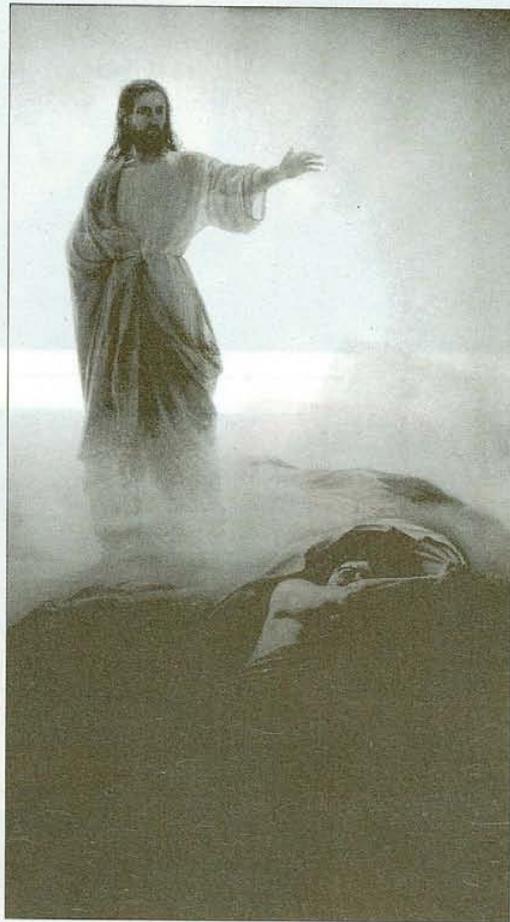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 세 살 때, 나는 브리감 영 아카데미에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 그곳에 다니던 무렵에 들은 것을 대부분 기억할 수 없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 하루는 카알 지 매이저 박사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시 생각을 다스리는 습관이 있지 않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인가 열흘 후에 나는 그가 말한 의미를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필멸의 생이 끝나게 되면 그것은 생각을 모아 놓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제언이 평생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게 될 뻔한 것을 여러 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생이 끝나면 그것은 생각의 산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48년], 62~63페이지)

습관은 성품이 됨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를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 점을 알았습니다. 물론경에 기록된 그의 위대한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르거니와, 너희에게 죄가 될 일을 모두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죄를 범하는 종류와 길이 여럿인지라 이제 내가 일일이 이를 열거할 수 없도다.”(모사이야서 4 : 29)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모사이야서 4 : 30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옛 사람이 기록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저의 마음에 간음을 행한 것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러한 것들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니파이삼서 12 : 27~29)

왜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까? 물론, 그 이유는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잠언 23 : 7)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

마음은 한 번에 한 막을 공연할 수 있는 무대라고 비유되어 왔습니다.

무대 한쪽 편에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놓고자 애쓰십니다. 무대의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악마가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에서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것들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대 감독입니다. 어떤 생각이 무대를 차지하게 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께서 그분과 같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그 자신과 같이 모든 인간이 비참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에 무엇을 항상 자리잡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에서 어떤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보이드 케이 팩키 장로는 여러분에게 영감어린 시온의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그 가사를 생각해 보기만이라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고한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마음 속으로 개회 찬송을 부른 후에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그는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자신에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마에게 우리의 무대 연기를 지시하게 해서 안됩니다. 대개는 우리가 미처 알아 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는 우리의 생각에 끼어 들어 옵니다. 우리의 책임은 악한 생각이 나타난 직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을 다루는가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유혹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마가 온갖 기만적인 논리로 합리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훌륭하고 좋은 생각을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시키고, 뜻대로 우리 마음의 무대에 이끌어 내는 것은 곧 우리의 특권입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큰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는 즉시 그의 기억 속에 쌓아 두었던 적절한 성구로 악마에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교성 6:36)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하고 물으신 다음,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하고 자신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그분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항상 그를 생각”(모로나이서 4:3, 5:2; 교성 20:77, 79)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람됨을 만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그는 이같은 질문을 언제나 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사도행전 9:6 영문 참조)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역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자 애쓰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해볼 만한 일은 없음을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보기”로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회개와 의로움에 따라 승영하도록, 위대한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그와 그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니파이삼서 12:48 참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하는 질문은 이 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생활하는 것은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구세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나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으나, 그와 함께 동반하면 아무도 실패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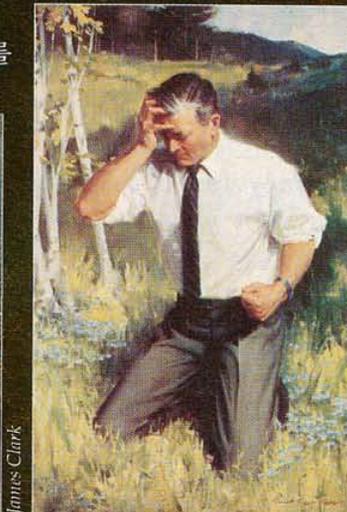
우리 모두가 이 순간부터 도덕적 용기를 갖추고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에게서 배우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주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사항 :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3.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악마는 모든 인간이 그 자신과 같이 비참해지기를 원합니다.
4.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가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하고 묻는 것보다 더 큰 질문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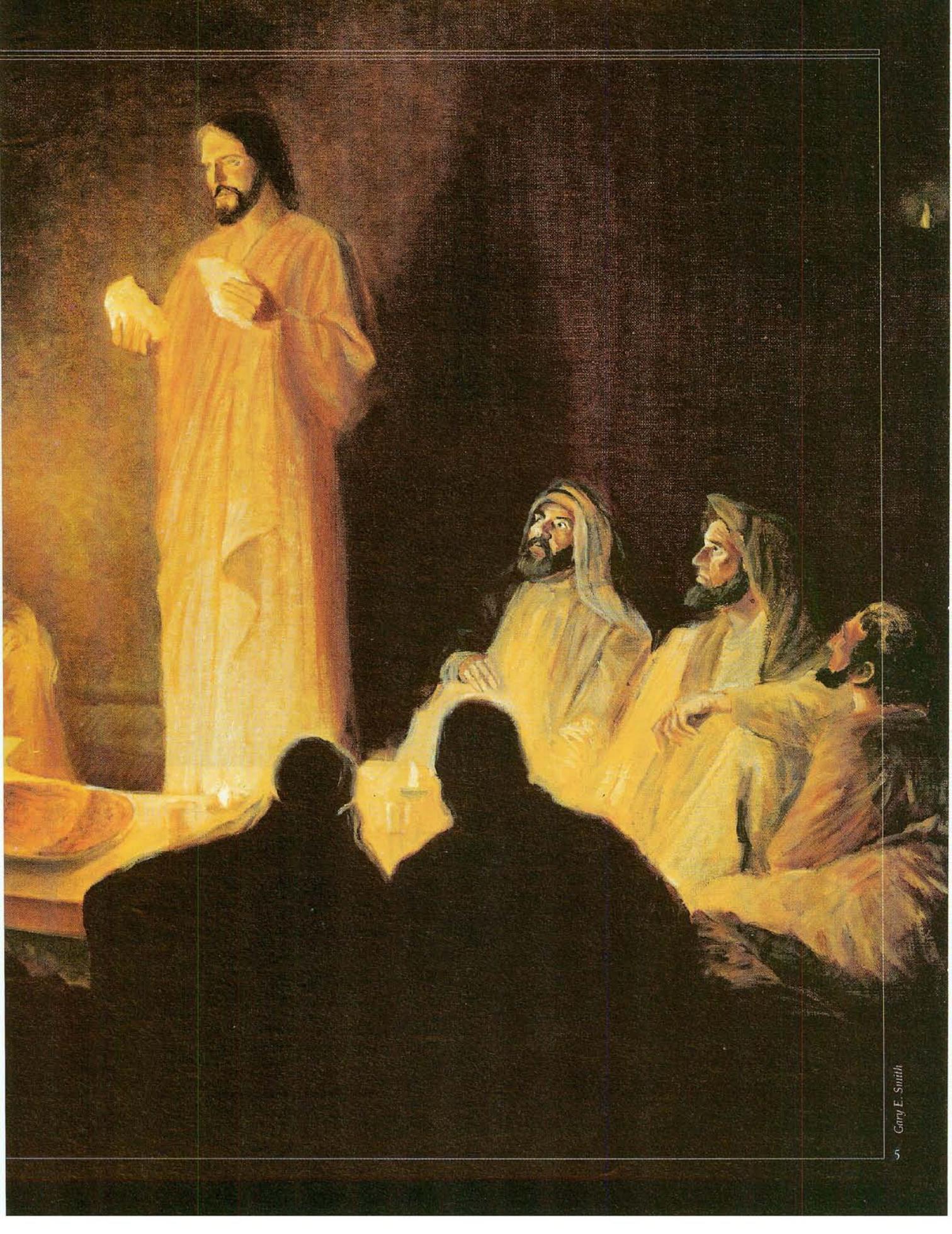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토론시 유의 사항

1. 우리의 생각을 다스림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느낌을 말한다.
2. 가족 회원들에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앞으로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게 한다.
3. 이 기사에서 가족이 큰 소리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성구 또는 인용문이 있는가?
4.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한 후에 이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는가? 감독이나 정원회 지도자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항상 그를 기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유산

시드니 스미스 레이놀즈



내가 좋아하는 스코틀랜드 사람중에 조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의 모친은 스페인 출신이지만, 그는 그야말로 스코틀랜드 사람이며 교회의 회원이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그는, 우리 가족이 그 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그의 조국에 있는 성을 보여주며 즐거워했다. “당신 나라에는 성이 없지요? 부끄러운 일이지요.”하고 그는 말하곤 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 일세이지만,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그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의 검은 곱슬 머리와 꿈꾸는 듯한 눈과 올리브색 얼굴빛은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지만, 그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충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조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조상과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 변화가 한 두 세대 전에 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야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생활을

많은 개종자들은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이
희생과 용기와 헌신 및 인내라는
교회 개척자들의 유산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된다.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조국의 관습과 신앙을 간직하고 있으나, 그들 역시 새로운 조국의 이상과 전통을 얼마간 받아들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개종자들은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희생과 용기와 헌신 및 인내라는 교회 개척자들의 유산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된다.

현재의 교회 회원들의 반 이상이 19세기에 유타로 이주한 개척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말일성도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검소한 생활과 시온의 건설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아름다움과 평화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교훈을 준다. 우리는 또한 개척자들로부터 희생과 큰 시련에 당면해서 우리나라 오는 용기와 헌신과 협동 및 인내심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초기 성도들은 평원을 건너면서 땅을 개간하고 갈아, 그 뒤를 이을 복음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았다. 그 밖에도, 브리감 영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성도들이 도착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솔트레이크 성전을 지을 부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그것을 건축하는 데 사십 년이나 걸렸으며, 그는 성전이 헌납되기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많은 일꾼과 장인들은 “나는 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볼 때까지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영원을 위한 건설

그러나 그들이 짓고 있던 성전의 축복을 직접 누릴 수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그것이 최선의 노력을 바칠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들은 영원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위해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성전을 지은 것이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위대한 개척자들의 유산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개척자들의 이야기는 다만 유타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복음의 이야기이며 전세계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많은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 스스로가 “개척자”로서 복음을 받아 들였거나,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 첫번째 회원들이다.

영국 태생인 로즈 톰슨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이 유타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척자들과 혈연감을 느낀다. 로즈는 열 살 때 병에 걸려 누워 있으면서 어려움을 앞에 둔 개척자들의 용기에 대하여 생각했던 일을 회상한다. “나는 내가 옆에 의사가 있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지 않고 개척자로서 평원을 횡단했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하고 그녀는 말한다. “나는 가는 길에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 세대에 속한 것을 감사드리고 나서 개척자들이 그들이 지닌 문제를 감당해 내었듯이 내 문제를 감당해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로즈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에딘버러로 이사했다. 거기서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상호부조회와 청녀 프로그램에서 교회 “개척자”로 봉사해온 나이 많은 자매를 자주 방문했다. 그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을 바다에서 잃었다.

로즈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분에게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으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으면, 그분은 그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나, 강인한 개척자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에 아이들과 교회 일로 전혀 알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툼 러셀은 말일성도 여인과 결혼한 후에 교회에 들어 왔다. 그는 그가 “받아들인” 개척자 유산에 대하여 로즈와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에게는 개척자 선조가 없으나, 그의 아내는 개척자 선조가 있다. “우리 딸 아이들의 대고조 할머니는 아침에는 발을 갈고, 오후에는 세탁을 하며 열 한 명의 자녀를 길러 내셨습니다. 밤에는 회계를 하고 브리감 영 아카데미 모임의 회의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말한다. “그것은 나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온다면, 그 때에 맞설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교회에 들어온 후 현재는 유럽에서 가족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제프와 셰리 버거는 유럽의 말일성도들에게서 개척자의 정신을 느끼고 있다. 버거 부부는 초기 성도들의 생활 기록이 신앙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개척자들의

우리의 독특한
개인적인 유산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이며, 주님의 사업에
함께 종사하고 있다.
개척자의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다.



경험에 대한 것을 읽거나 듣기를 좋아합니다.”하고 제프는 말한다. “나는 그들의 시련과 승리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들이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든지 나의 ‘개척자’ 선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위한 변화

리처드 벤 헤이건은 현재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자신이 교회의 회원이 된 덕택의 일부를 개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는 먼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인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시골 길을 운전해 가던 중에, 그는 차의 라디오 신호음이 너무 약해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을 찾았다.

“내가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프로그램은 물론 개척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나는 완전히 매혹되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 뒤까지, 라디오를 끄고 차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그곳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프로그램을 듣기 전에 벤 헤이건 형제가 교회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곤 없었다. 그러나 그는 초기 성도들의 신앙과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들의 결심에 감탄했으며 그들에게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방송되거나 한 것인지 때로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다. 몇 주 후에, 선교사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으며, 그는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가입했다.

카렌 레이놀즈에게는 유타주와 멕시코 식민 지구에 정착한 개척자 조상이 있다. “7월 24일에 개척자의 날 경축식을 가진 후에 멕시코 여행에 관한 행렬이 뒤따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냈던 옛날 이야기를 했으며, 강둑에 동굴을 파고 생활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하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부모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기술, 즉 일하는 방법, 과일 저장법, 빵 굽는 법, 바느질 하는 법, 갖고 있는 것으로 생존하는 법 등으로 얼마나 유익을 받게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카렌의 남편은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해 자리를 다시

잡고 가족 농장을 보살피기 위해 보수가 상당히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나, 우리의 개척 능력이 사실상 시험받았습니다.”하고 그녀는 말한다.

“검소한 생활에 관하여 상호부조회에서 배운 공과를 따르는 시험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고 현명하게 구매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있는 것으로만 생활하기”가 카렌이 19세기 개척자들에게서 배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지난 해에, 그녀 부부는 아기를 잃었다. “아기를 찬 무덤에 넣어 놓을 때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하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병이 나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카렌은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한 워드 회원이 그녀에게 책을 한 보따리 가져 왔는데 그 중에는 개척자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책을 읽어 보고, 나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길가의 알개 판 무덤에 그들의 어린 아기를 남겨 두고 떠났는가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에게는 판도 있고 묘비도 있으니, 나는 언제라도 그 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나는 나의 축복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나아갔으니, 나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우리의 개척자들이 남긴 유산을 감사하게 여긴다. 우리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영감과 용기와 축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초기 성도에 관한 글을 읽을 때, 마치 그들 대부분을 알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들이 참여했던 위대한 사업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조그만 계곡을 둘러싼 산맥이나 그들 자신의 혈통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말일의 개척자로서 각자의 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에게 대하여 그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교회는 위대한 개척자 가족의 아들과 딸들뿐만이 아니라 지구 각처에 있는 개척자 일세대가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독특한 개인적인 유산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들이며, 주님의 사업에 함께 종사하고 있다. 개척자의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다.*

시드니 스미스 레이놀즈는 요셉 스미스의 형, 하이람의 고손녀로 오림 유타 웨론 스테이크의 오림 제23와드에 살고 있다.

아낌없이 내어 줌

아이작 시 퍼거슨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의
헌금과 특별 금식

이제는 바삭 말라 잿빛이 되어버린 이디오피아 북부의 단층을 이룬 산맥과 불규칙한 모양의 계곡은 이곳이 전에는 녹색의 기름진 땅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간혹 눈에 띄는 관목은 우기에 북쪽으로 옮겨가는 유목민들이 한때는 가축을 방목한 녹색 바다의 잔재임을 말해줄 뿐이다. 가뭄으로 목초지가 벌거벗고 가축이 말라 죽었으며, 방랑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무한한 땅을 작은 농지나 정부 원조와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물 한방울 찾을 수 없어, 살아야겠다는 희망은 나라의 기름진 흙과 함께 점차 침식되어 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의 웰로 지방의 갯도바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곳,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북쪽 560킬로미터에 달하는 한발에 시달린 산지 계곡에 교회에서 착수한 소규모 관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교회 회원들의 헌금으로 기금이 된 인도주의 봉사 사업의 일환인 것이다.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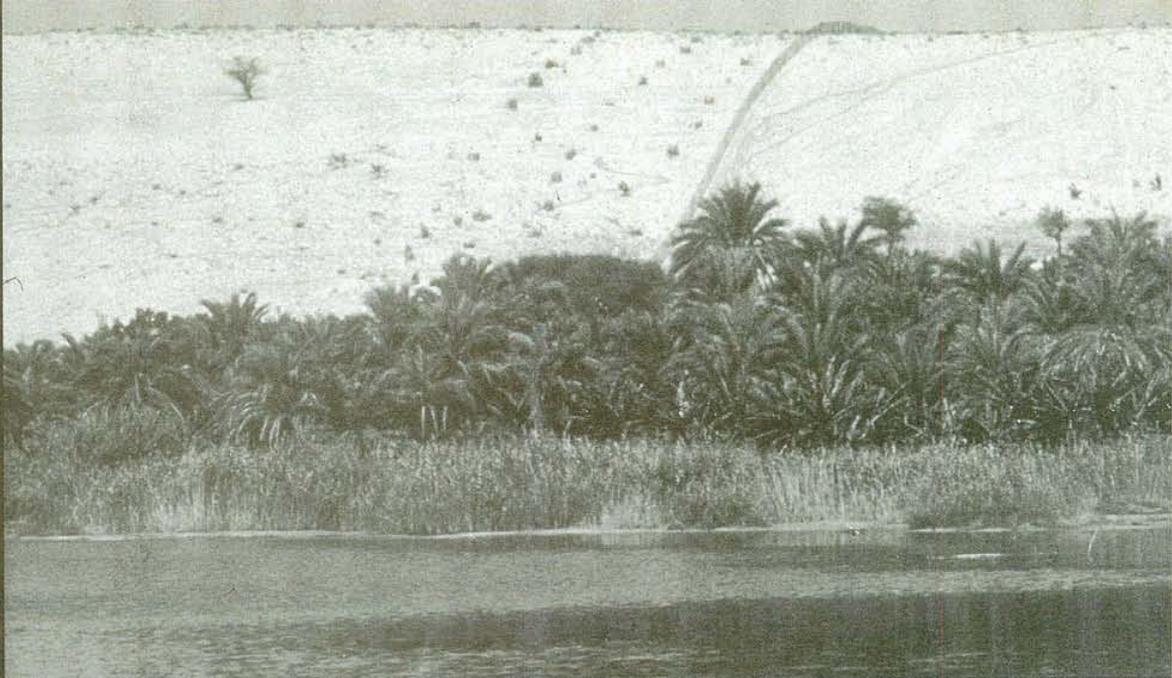
1985년에, 대관장단에서 낸 두 번의 서한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특별 금식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금식으로 기부된 기금은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의 국민들 사이에 굶주림과 기아를 초래한 기근과 기타 원인에 의한 희생자가 사용하도록 헌납”될 것이다. 그 서한은 “헌납된 모든 기금은 교회 회원을 불문하고 고통받는 지역에 있는 굶주린 곤궁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돕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미화 약 일천 백만불을 기증했다.

1985년 첫번째 특별 금식이 있던 직후,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이디오피아와 인접 아프리카 국가의 고통받는 희생자들에게 식품, 텐트 및 의약품을 분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실한 조직”을 찾아 보았다. 1985년 남은 기간과 1986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제 적십자사 위원회와 가톨릭 원조 봉사단, 미국 원조 물자 발송 협회(케어) 등에서 교회에서 제공한 원조 물품을 전달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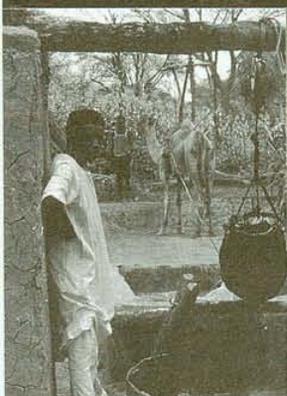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교회 복지 봉사 철학의 정신에서, 총관리 직원들은 얼마간의 기금을 장기간의 자립심을 증진시킬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기금의 일부는 갯도바에 있는 것과 같은 각종 사업에 사용되었다. 이디오피아, 차드, 니제르,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등에서 수행된 이러한 대부분의 활동은 장래의 한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수지와 농업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1985년 11월에 모은 두번째 특별 금식 기금은 아프리카의 기타 지역과 또한 원조를 크게 필요로 하는 다른 대륙에 대한 원조 사업에 현재 할당되고 있다.

아프리카어(워싱턴 디시-자원 단체)의 지시하에, 갯도바에서 천 에이커에 달하는 이 계곡의 관개 수리를 제공하는, 산의 수원지에서 나는 물을 관장하는 사업이 1985년 중반에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1984~85년의 아프리카 한발로 수백 만



이곳 차드의 와디(오아시스)의
풍성한 식물은 주변 사막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곳 지표층을 흐르는 물은
소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와디의 농작물은 손으로 판
얇은 샘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곳 와디는
개발된 우물 체계를 도입하여
더 효과적인 관개를 하고 있다.
과지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시스템을 설계한 모로코인이
낙타가 우물에서 80리터 물이
물통을 끌어 올리고 있는 동안
진흙 벽돌로 쌓아 올린
지주벽에 기대어 있다.



차드에서의 와디 개발

와디는 오아시스로 생각되는 전형적인 사막의
저지대 또는 마른 하천 바닥이다. 이러한
지역의 표면에 있는 물을 사람이나
가축이 사용하기에는 또는 관개 사업용으로는
보통 염분이 너무 많으나, 그 지역은 비옥하여
와디 내에 있는 얇은 우물(샤두프)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여 곡물을 재배할 수 있다.

근년에 이르기까지, 와디는 “우기”에 한해서
유목민들이 가축과 양들을 키우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발기에는 수많은 가축이
손실되므로, 차드인들은 와디를 농업용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다. 전형적인 와디는 현재 삼,
사백 명에 대한 주식 공급원이 되어야 한다.

와디에서 개간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샤두프에서 몇 리터씩 자루에 물을 담아
걸어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관개 사업이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케어와 협조하여,
교회는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수리
사업을 개간하기 위해 인본주의 사업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큰 우물
시설이 설계되었다. 낙타는 우물에서 물 80리터
들이 자루를 끌어 올린다. 자루의 물을 물통에
부으면, 물이 관개 시설로 흘러 들어, 옥수수,
감자, 소금(당밀) 및 후추 등을 포함한 각종
작물에 물을 대어 준다.

하천 보호 사업 역시 와디내에서 착수되고
있다. 대추, 야자, 목재가 아니라 진흙 벽돌이
우물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나무는
바람막이가 되어 사막의 모래가 와디로 쌓이지
않도록 한다. 결국, 와디에 대한 바람막이와
우물(샤두프) 만드는데 쓰이는 목재는 지역에서
자라나는 한발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갖춘
나무에서 나올 것이다.*

명이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되고 수만 명의 사망자가 속출한 일로 인해 교회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이디오피아 수리 사업의 완성은 원조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 약 1,650호의 농가의 가족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올 여름에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이들 농부들은 그 공사에 연인원 200,000명 이상이 동원될 것이다. 희생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산지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두 세 시간씩 걸어 나와, 열 시간 반 가량 일을 하고 집으로 다시 걸어간다.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은 그 공사에 한달에 5일에서 8일 정도 바친다. 한 일에 대하여 식품을 공급하는 제도는 하루의 노동에 대하여 3킬로그램의 곡식이 공급된다.

건축 기간을 단축시키고 인간의 노력을 줄이기 위해 첨단 기술 및 현대 장비가 동원될 수 있었으나, 그 지역의 자재와 도구를 사용하여 거주자들이 완성하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를 돕고 완성된 작품에 대한 소유자의 자존심을 키워주게 되었다. 이 방법은 또한 공사 비용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지역의 농부들은 약 24킬로미터의 운하를 모두 다 뚫으며 강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시설의 기술적인 장치는 지역의 농부들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것이다.

장기적인 자립

이디오피아 정부는 계곡에서 연중 물을 활용할 수 있는 효용 가치를 재빨리 인식했으며, 그 공사를 다른 인본주의 단체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활용한다. 한 정부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다른 사람들도 따라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자립을 제공하며 그들의 결실을 두 배 세 배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을 직접 이용한, 저렴한 기술 비용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실험이 됩니다.”

이디오피아 농업 장관은 근처에 낙농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이 제공됨으로써 공사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소규모 낙농 목장 하나가 이미 세워져 있다.

농부들 역시 열성적이다. 시설이 완성되기 전에도, 임시 도랑이 파여져 40에이커(약 48,000평)에 달하는 토지에 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농부들은 파파야, 구아바, 바나나 나무 단지를 조성했으며, 각종 야채 재배지를 개간했다. 그러한 모험은 전에는 성장기에 물이 부족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다.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이며 영국/아프리카/아일랜드 지역 회장단의 일원인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는 그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본질적으로 그 사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식량에 관한 한, 세 개 마을에 사는 일만여 주민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은 방편을 갖게 되어, 비가 어떻게 내리든 관계없이 그들이 필요한 식품을 재배하여,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를 생산하게 됩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금년에도 대량의 식량 기부를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전천후 수리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교회의 사업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대한 것이다.

위기의 때

1985년의 교회 전체의 금식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방법이었으나, 교회는 항상 위기의 때마다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수십 톤의 식량과 의복과 약품이 교회 회원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던 전쟁 피해 지역인 유럽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1954년에도 교회는 그리스의 빈민들을 돕기 위한 유타주내 연합 교회 이오니아인 구조 사업에



안데스 아동 재단의 후원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하나는
 양어장 개발이다. 마을 사람들이
 못을 파서 깨끗한 물을 대고,
 양장 자리를 바윗돌로 장식한 뒤
 연못에 고기를 기른다.
 양어장은 그곳 주민들에게
 유일한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상품 가치도 있다.
 오른쪽 : 소라소라 마을의
 양어장을 구경한 이웃
 시페시페 마을 사람들이
 연못을 파 물을 채우고는
 재단을 찾아가 물고기와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 : 아이작 시 퍼거슨

볼리비아 산지의 취락지 개발

교 회는 최근에 안데스 아동 재단과
 연합하여 볼리비아 산지 주민들이
 취락지를 개선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개발 전문가들은 마을의 지도자들과
 만나 그 마을의 필요 사항을 알아본다. 그런
 다음 전문가들은 그러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지도자들을 도와 준다. 그
 밖에도, 안데스 아동 재단은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자원을 얻도록
 도와 준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그들의 필요 사항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취락지 개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운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성취감을 주며 장차 개선해 나가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준다.

예를 들어, 소라 소라 마을의 지도자들은 보다

많은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농사 방법을
 개선하기를 원했다. 재단은 사람들이 저렴한
 경비로 우물을 파고, 물을 끌어 올리는 풍차를
 세우며,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건설하며,
 곡물을 개간하기 위한 수로를 파고, 안데스
 고지의 추위에 살아남 수 없는 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온실을 만드는 것을 도와 줬다.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시설을 세워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관리해 나간다. 사람들이 취락지 사업의
 성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 농장에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학교를 세우고, 마을의 보건소 직원들을
 훈련시키며, 새로운 식량원을 개발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사업이다. *

아래 : 주민들이
 그들 부락의 필수품과
 이들 필수품을 얻기 위한
 래의 계획을 토론했고 있다.
 사진 : 안데스 아동 재단 소장



아시아 난민 직업 개발

1975년 이래, 수만 명의 아시아 난민들이 그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 그러나 언어 장애, 문화적인 차이 및 부적합한 직업 능력으로 그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 또는 불완전 고용인으로 남게 되었다.

북 아메리카 서부 지역 회장단과 캘리포니아 복지 사업국은 합동으로, 교회는 말일성도 아시아 난민들과 그들의 비회원 친구들이 언어 능력을 키우고, 직업 기술을 익히며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 주고 있다. 각 지역 스테이크에서는 지원자들이 나서서 환경 적응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영어 교실 및 호텔 부기, 양탄자 깔기, 초보적인 컴퓨터 사용법등과 같은 직업 기술을 가르친다. 지원자들은 또한 난민들에게 직장 면접, 적절한 복장, 보건 위생 및 미국인 직장 규범에 대한 것도 가르친다.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스테이크는 교회 고용 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직장에 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도록 돕고 단체 훈련의 기회를 알아 보는 일을 도와 준다. *



왼쪽: 니제르 마을 농부들이
방풍림이 줄지어 심어진
들판에서 기장(포아풀과의
일년초 수수와 비슷)을
수확하고 있다. 조림 사업의
일부로서 케어(미국
원조 물자 발송 협회)의
후원과 일부는 교회 회원들
기부금에 의해 심어진
이 방풍림은 땅의 침식을
막고 농업 생산량을
30 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사진: 케어 소장

오른쪽: 니제르의 마지아 계곡의
농경지대에 심어진
나무 약 90미터 간격의
두 줄 평행으로 심어진
방풍목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바람에 의한 토지의 침식을
줄임으로 해서 표토를
보존시켜 준다.

사진: 케어 소장

아래: 나무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벌채되어
예복 또는 연료로 공급된다.
노동자들은 나무가 자라면
각 쌍중 한 나무를
지면에서 2.5미터 높이로
가지를 쳐주어서 위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한다.
새로운 가지가 농작물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자라면

다른 쪽 나무의
가지를 친다.

사진: 아이작 시 피거슨



니제르의 농림 관리

아 프리카의 준 사하라 지대에 있는 나라,
니제르는 심한 기근과 한발의 상태에
있다. 개간될 수 있는 땅도, 바람이 불어
상층 토양을 날려 버렸다.

케어(미국 원조 물자 발송 협회)의 지휘하에,
1985년 특별 금식으로 교회 회원들이 낸 기금은
니제르 서부의 마지아 계곡에 있는 유아원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곳 주민들은
바람막이를 위한 나무 묘목을 키운다. 이 묘목이

자라게 되면, 그것은 주민들의 조그만 농장으로
 옮겨 심어져 바람으로 귀중한 토양이 날려
버리지 못하게 막아 농작물 보호에 쓰인다. 이
사업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30퍼센트 이상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농림 사업은 계속성과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삼림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되고 있다. 그 사업은 아프리카 준
사하라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다. *

참가하여, 복지 프로그램 창고에서 기증된 일용품을 상당량 제공했다. 1906년에는 교회에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중국인들을 원조하기 위해 상호부조회의 곡물 창고에서 밀가루를 보냈다. 지난 이십여년 동안 교회는 위기에 처한 전 세계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원조를 계속해 왔다.

주께서 불쌍한 자들을 돕도록 교회에 권고하신 것은 분명하다. “모든 사람에게 ...향한 너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교성 121 : 45) 엘마서 제1장에 묘사되어 있는대로, 니파이 백성들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 “각각 저들이 가진 정도에 따라,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하며 병들어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저들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 ...저들이 이렇게 변영하면서 햇빛고 굶주리며 혹은 목마르고 혹은 병들고 또 잘 먹지 못한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조금도 치우침없이 거저 나누어 주었느니라.”(엘마서 1 : 27, 30)

고난에는 지리적 또는 정치적 경계가 없다. 교회의 인도주의적 원조는, 그들의 종교나 정부 형태에 관계없이, 우리 이웃에 대한 임무이다. 관리 감독단 제이 보좌인 글렌 이 페이스 감독은 이디오피아 방문 보고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가 바친 헌물은 정치적 동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도왔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십이사도 평의회)와 내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공산당도 마르크스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보지 못했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굶주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을 건네주는 것을 넘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모사이야서 15 : 28)에게 복음을 전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위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

지원자의 시간과 재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본주의적 사업은 제한되어

있다. (1)천재지변으로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긴급사태 및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구조를 요청하는 사태; (2)가난, 불결한 보건 상태 또는 자구적인 개발로 개선될 수 있는 불완전한 환경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상황 등이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교회 기금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회원들이 기증한 자원에 한해 국한되어 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궁핍한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시민으로서,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가치있는 인도주의적 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를 권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현찰 또는 일용품을 기증하는 외에도, 그들은 그 사업에 시간과 재능을 자원하여 바칠 수 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능력을 바치기를 원하며,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 회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봉사의 형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교회에서 전 세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 기관과 함께 일해 나가면서 봉사의 기회가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 같은 예로 최근에 듀이 피터슨 형제와 그의 아내, 페트리시아는 나이지리아에서 수개월간 머물면서 우물을 파기 위한 기계 설비를 하고 지역 주민들을 교육 시키는 일을 자원했다. 유타주 바운티플 출신의 피터슨 부부는 교회 후원 사업으로 아프리카에 자원 봉사자로 봉사했다. 사립 비 영리 단체들도 교회 회원의 자원 봉사 일을 환영한다.

교회는 자선 봉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일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왔다. 교회의 개개 회원들로서의 우리의 과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봉사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복음의 정신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작 시 퍼저슨은 교회 복지 사업 직원이며 교회 인도주의 사업 분과 위원회 집행 서기이다. 그는 바운티플 유타 풀러 파크 스테이크에 거주한다.

이디오피아 웰로주에
 위치한 깃도바 부락 농부들이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계곡에 공급하기 위한
 수리 시설의 일부인
 운하를 파고 있다.
 강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운하와 제방 뚫은 지방 장비와
 물자들을 가지고 일한
 주민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주민들이 몸소 그 시설을
 세웠기 때문에 관리법도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완성된 운하 사업에 대한
 소유주로서의
 긍지도 키웠다.

아래 : 완성된 뚝은 이 지역
 계곡에 연중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여, 농부들이
 과거에는 재배할 수 없었던
 과일 및 채소를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사진 : 아이작 퍼거슨 소유



브리감 영

초기 시절

에스 딜위스 영

1801년 6월, 요셉 스미스가 태어나기 사년 전에 브리감 영이 태어났습니다. 브리감의 부모는 아홉번째 아이가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브리감 영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삼십 여년간 교회의 성장을 관찰해 온 사람,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성도들을 인도한 사람, 미국 남서부 지역의 많은 지역 사회의 정착을 지시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들려 드리는 이야기는 브리감 영의 어린 시절과 개종 그리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경험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것입니다.

1800년에, 브리감의 아버지 존 영은 매사추세츠주 흠킨턴에서 아내와 여덟 자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몬트주 워팅검에 사는 사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구입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값이 싼 땅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말에 존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워팅검으로 이사했으며, 1801년 6월 1일에 브리감 영이 태어났습니다.

1802년에 영 가족은 뉴욕주 셔번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사년 간 살았습니다. 두 자녀가 더 태어나 열 한 명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중에 딸, 내비는 죽었습니다.

그 후 몇해 동안의 가족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던 일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쉬임없이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서는 때였으며, 어딘가 정착하기에 더 좋은 곳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재정적인 필요에서 뿐만이 아니라 원래 활동적인 사람인 까닭에, 땅을 조금 사서 나무를 베고, 깨끗이 치워 개간을 하고는, 다시 옮겨 갔습니다. 그러나 존은 혼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자매와 그 가족들이 그의 주위로 옮겨와, 잠시 정착해 살다가 다시 떠나곤 했습니다.

브리감의 가족은 한번도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두조차 사치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운 좋게도 그는 구두 한 켤레를 갖게 되었습니다. 브리감은 맨발로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으므로, 구두는 특별한 때를 위해 아껴 두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는, 집회소 가까이 갈 때까지 구두를 들고 갔습니다. 그는 모임 중에는 구두를 신고있다가 모임이 끝나면 곧 벗어 들었습니다.

브리감 영이 공식으로 수업을 받은 것은 지역을 순회하는 교장의 지도하에 열 하루 동안 가르침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책 읽기를 가르쳤으며, 그는 천부적인 연구생으로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세상일에 대하여 열심히 관찰하는 형이었습니다. 브리감이 열 네 살 되었을 때, 그의 모친 내비 호우 영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후 브리감은 견습공으로 들어가, 목공, 캐비닛 제조, 칠 및 유리 제품 일을 배웠으며, 그가 도시를 건설하게 된 말년에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시작해 나감

1817년에, 열 여섯 살난 브리감은 그의 부친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독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으며, 전문가로서, 꼼꼼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의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자 포트 바이런으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1824년 10월 5일에 미리암 워스와 결혼하였으며, 그들은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한편, 존 영과 브리감의 형제 자매들은 뉴욕주 멘든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브리감에게 그곳으로 다 합세할 것을 권유했으며, 결국 1828년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버 시와 바일릿 킴볼을 만나 그들과 인생의 우정을 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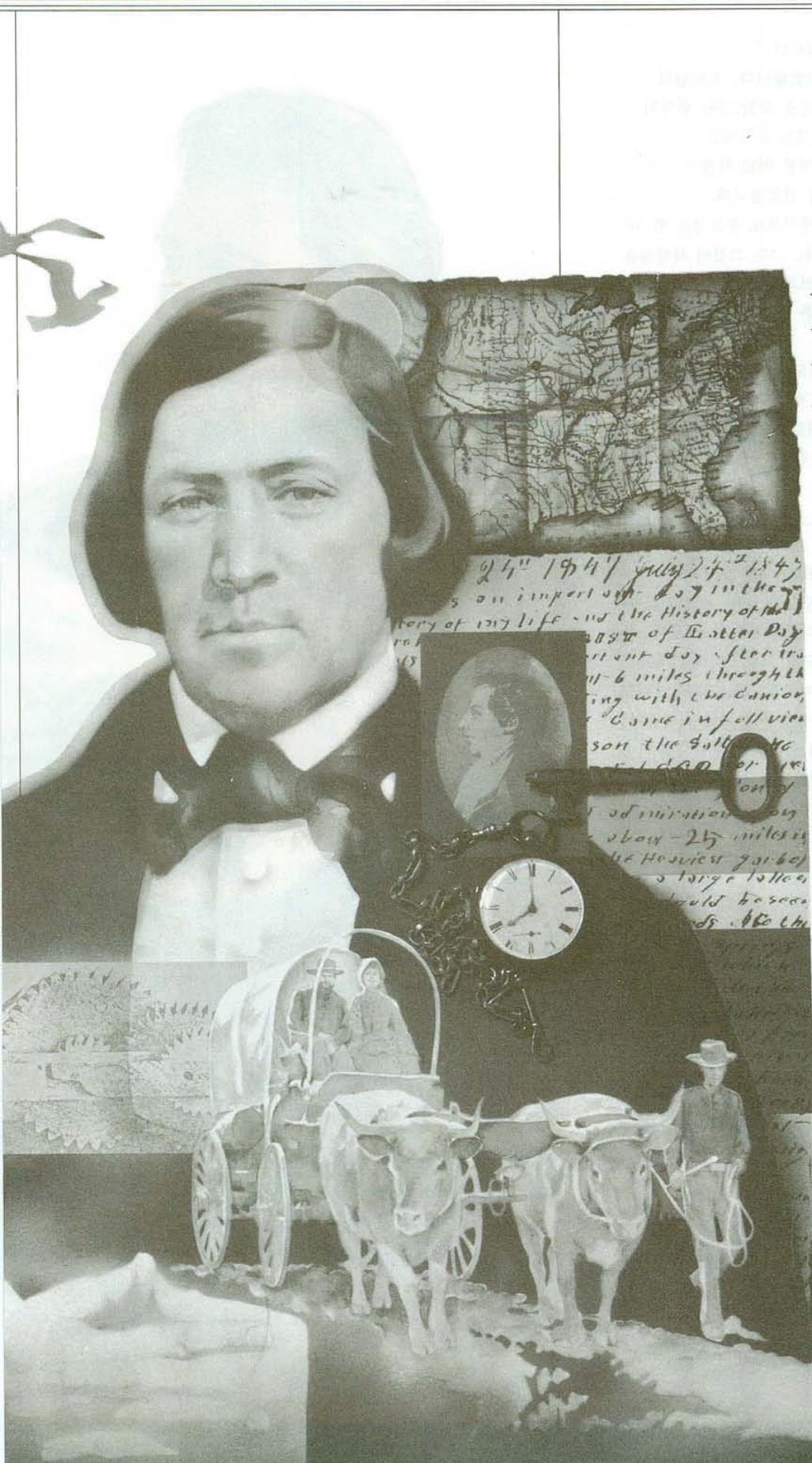
멘든에서 브리감의 형이며, 감리교 순회 목사인 피니애스 호우 영은 우연히 그의 회중의 한 사람인 톰린슨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어느 젊은 개이 피니애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읽어 보셨으면 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하고 피니애스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요?”

“물론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한 책에 관해 떠도는 소문을 들은 바 있는 피니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황금의 성경말이군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하고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 원리에 헌신하고,
 주님에게 충실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로
 브리감 영 대관장은
 현대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었다.

목격자들의 간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니애스는 세 목격자의 증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물몬경이 번역된 판을 보았으며, 번역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는 판을 보고 만져본 여덟 사람이 그것을 고대의 놀라운 숨씨라고 설명한 것을 읽었습니다.

피니애스는 그 책의 거짓을 밝힐 생각으로 물몬경을 한 권 샀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난 후,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친과 브리감과 다른 가족들에게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읽은 것이 진실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해 여름, 다섯 명의 젊은 말일성도가 요셉 스미스의 물몬경에 관한 그들의 지식을 나누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피니애스는 그들을 그의 집으로 맞이했으며, 방문객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영 가족과 김볼 가족이 모였습니다.

중대한 결정

교회의 구도자가 된지 이년 후에, 브리감은 근처 숲속에 있는 흐르는 냇가에서 침례받았습니다. 1832년 4월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눈이 무섭게 쏟아져 거의 앞을 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통나무 위에 앉아, 젖은 옷이 얼어 붙어 오는 채, 브리감은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고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증거해주는 감미로운 성신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 미리암은 일주일 후에 침례받았는데, 수 개월 후 그녀는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Wanberg



그녀가 사망한 후, 브리감과 미리암의 두 딸인 엘리자벳과 바일릿은 히버와 바일릿 킴볼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832년 가을에 브리감과 그의 형제 조셉과 히버 시 킴볼은 예언자 요셉을 만나기 위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까지 560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브리감과 요셉이 악수를 할 때, 브리감은 “나는 이 분이 예언자임을 안다.”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는 요셉 스미스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의 곁에서 잠시도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멘든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브리감과 그의 형제 조셉은 십일월 말이나 십이월 초에 집을 떠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진흙탕 길로 눈과 찬 바람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 들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봄이 되자 곧 브리감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종시키러 혼자서 갔습니다. 그는 그와 그의 형제가 전에 가르친 일이 있었던 캐나다의 러프버러에 가서 개종자 무리와 합류했으며, 그들은 960킬로미터 떨어진 커틀랜드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멘든으로 다시 걸어 왔습니다.



1833년 그해 가을, 브리감과 킴볼 형제는 그들의 재산을 팔아, 예언자와 함께 하기 위해 커틀랜드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커틀랜드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겨울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리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언자와 함께 하기 위해 왔으니, 곁에 머물 생각입니다.” 커틀랜드에서는 일할 자리가 많지 않았으나, 그는 때때로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라도, 예언자가 어떤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을 이끌 때는 언제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연장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한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1834년에 브리감은 메리 앤 앤겔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브리감의 두 딸을 키웠으며 여섯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제일 어린 두 아들은 후에 교회의 총관리 역원이 되었습니다. 브리감 이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으며 존 더블류는 부친의 제일 보좌였습니다.

시험의 예

그 같은 해에(1834년), 미주리주 잭슨 카운티에 사는 말일성도들은 폭도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언자는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200명의 지원자로 이루어진 소규모 군대인 시온의 진영을 조직했습니다. 브리감과 그의 형제 조셉은 그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미주리 정부가 성도들의 주장을 지원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예언자는 지원자들을 해산하고 그들을 커틀랜드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1,600킬로미터에 달하는 참기 힘든 오랜 행군은 배움의 시간이었으며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조셉 영은 후에 이보다 더 가혹하게 신앙의 시험을 경험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에게 헌신한 브리감은 손수 방어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배도가 일어났을 때나 예언자에게 반대파가 있었을 때에도, 브리감은 다른 충실한 형제들과 더불어 굳게 섰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배도한 폭도들이 매복하여 요셉을 살해하려는 음모에 대항하여 예언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기에, 브리감이 장차 발휘할 교회의 지도력이 배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이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교회 형제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담보로 내놓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기를 원하는 교회 회원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 주고자 그들의 돈과 가축과 포장 마차와 공동으로 소유한 모든 것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브리감은 원조를 계획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바일릿 킴볼 및 그들의 자녀를 포장 마차에 태우고 파웨스트에서 일리노이주 켄시까지 30킬로미터를 가면서 다음과 같은 봉사의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그는 포장 마차에서 가족과 짐을 내리고, 아내자들을 위해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지필 땀감을 잘라 쌓아 놓고는 다른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파웨스트로 포장 마차를 몰아 갔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의 가족과 킴볼 가족을 30킬로미터 더 태워 갔으며, 그 동안 뒤에 온 가족들은 그곳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는 그의 가족과 킴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떠날 방책이 없는 가족들을 옮겨 주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모든 성도들이 파웨스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은, 브리감과 킴볼 형제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파웨스트 성전의 초석을 놓는 일을 마치고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나겠다고 주님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배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브리감과 올슨 프랫과 존 이 페이지, 존 테일러,



월포드 우드럽, 조지 에이 스미스 등은 파웨스트 성전 부지로 다시 가서 소수의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봉사 작업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일리노이주, 커머스(현재의 나부)로 가서 그들의 가족을 정착시키고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브리감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 몬트로즈에 있는 군 막사에 가족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선교 사업의 고통스런 시작

그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브리감은 너무 심하게 앓아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 아기를 낳은 그의 아내 역시 병을 앓았으며,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주님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고 선교사를 나가기로 결심한 브리감은 집에서 기어 나와 마차에 비틀거리며 올라 탔습니다. 고통스럽게 마차를 타고 강변까지 온 후에, 강을 건넌 다음, 그는 오랫동안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부가 따라와 킴블 형제의 집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와 보니 히버도 역시 병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두 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으며, 결국 주님의 사업을 하러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마을 밖으로 태워다 줄 마차를 마련한 후 각자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앤은 브리감을 간호하기 위해 강을 건너 갔습니다.) 병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두 사람은 마차에 기어 올라 누웠습니다. 킴블 형제는 브리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모자를 벗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만세, 만세, 시온 만세!” 그리고는 마차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수 개월 동안 그들은 뉴욕으로 가는 길을 헤쳐

나갔습니다. 브리감은 누더기 옷을 입은 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현 이불을 둘러쓰고 줄로 동여 매는 일이었습니다.

1840년 이월이 되자, 그들은 항해하기로 결심했으나 돈이 없었습니다. 브리감은 지역의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돈 한푼 없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으로 가야하는데, 바다는 헤엄쳐 갈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은 브리감을 위해 19불 50센트를 모금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비용은 19불이었습니다.

삼월에, 그들은 영국의 리버풀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여행은 브리감에게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배멀미로 시달렸으며,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체중을 잃어 리버풀의 선창으로 그를 마중 나온 그의 사촌, 윌라드 리처즈도 그를 알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브리감과 그의 동료들은 영국에서 위대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물몬경 5,000부와 찬송가 3,000부를 인쇄하고, 영국의 교회 잡지로서 *밀레니얼 스타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약 8,000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선교 사업 기간 동안 그가 얻은 경험은 예언자가 순교당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대관장으로서, 브리감은 성도들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하고, 교회에 안정과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그는 1877년 8월 29일에 복막염으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했습니다. 임종시에 브리감은 방의 천정 모서리 한 끝에 있는 누군가에게 시선이 고정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 요셉! 요셉!”하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구도자가 된지 이년 후에,
브리감은 근처 숲속에 있는 흐르는 냇가에서 침례받았습니다.
1832년 4월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눈이 무섭게 쏟아져 거의 앞을 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통나무 위에 앉아, 젖은 옷이 얼어 붙어 오는 채,
브리감은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고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증거해주는 감미로운 성신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 미리암은 일주일 후에 침례받았는데, 수 개월 후 그녀는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구름은 한 군데 가만히 있는데, 그 밑에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주장이 옳은 것이기를 갈망하며, 합창하듯이 물었다.

언니는 기뻐했으나 나에게서는 실망스럽게도, 어머니는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하늘에 바람이 부는대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자연 법칙에 대한 나의 지식은 불완전했으며 나는 나의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 했다. 나는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었다.

열 다섯 해가 지난 후에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았다. 나는 실제 세상에 대한 나의 모든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던 부분적인 지식의 토대위에 세우고 그러한 관점을 정확한 것으로 생각했다. 즉, 보다 광범위한 지식을 전해 받음으로써 시정받게 되기까지는 그러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부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과 이해로 인해 그와 같은 미숙한 추측을 하는 때가 많다. 우리는 사고를 당해 마비가 되는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자매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음주 운전자가 무죄한 사람을 죽일 때 사람들은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말한다.

세월이 흘러, 그렇게 몸이 불편한 자매가 새로운 생활 양식에 적응하여 성장하고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된다.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만일 세상에서 그릇된 행위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취하여 가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의 불완전한 과학적 이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이론도 완성과 시정을 필요로 할 때가 흔히 있다. 우리가 구하는 더욱 많은 지식과 이해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지니, 너희가 ...이론과 원리와 교리를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을... 배우게 되리니,”(교성 88 : 78~79)*



Craig Diamond

클로드 버나드

솔 직하게 말해서 나에게서는 실제로 아버지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아직도 살아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를 알 기회를 한번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기억이라고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불쑥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사실상 기억되는 것은 그의 부재에 관한 것이 전부이다.

나는 아버지를

그는 우리를 떠났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느낌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나의 어머니가 입원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병이 들게 되었을 때 점차 완전한 혼동과 낙담으로 변해 갔다. 내가 어머니를 문병하러 가 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러 왔다. 그 즈음, 그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 나는 얼마간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아니야, 너무 늦었어.”하고 말했다.

아버지의 부재에는 상당한 정서적인 결함이 따른다. 어머니가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배반당한 듯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러한 감정을 영원히 간직한채 살 수는 없었다. 첫번째 변화는 내가 교회에 가입했을 때였다. 회원으로서 나는 마음 속으로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혼동이 되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한번도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기를 원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가 선택한 결정에 원망과 분노를 느꼈다. 어머니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기도할 때 아버지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고 주께서 그를 도와 주시도록 간구할 것을 요청했다.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단연코 할 수 없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것을 배워 가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듯 했다. 내가 신권의 중요성을 알았을 때, 신앙을 합당하게

알지 못했다

행사함으로써 오는 축복이 나를 슬프게 했다. 왜 우리 가족중에는 어려운 때에 함께 하는 책임있는 신권 소유자가 없는 것인가?

그러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나는 다른 견해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릇된 행실에서 빠져 나왔으며 주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신대로 살고자 노력했다. 나는 기도로 큰 위안을 찾았다. 이제서야 나는 내 모든 문제점과 기쁨과 조그만 승리까지도 모두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느낌이었으며, 중요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분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진실로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영의 아들이었다. 나를 지지하며 격려하는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가득찼다. 나는 귀중한 선물... 곧 소속감을 받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에는 모두가 공통된 아버지를 공유하는 형제와 자매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며, ‘나는 어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니 이것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소’ 하고 생각하곤 한다. 우리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은 힘과 평화와 성취감이었다. 주님은 나에게 용서와 같은 개념이 어찌서 모든 것을 포용하며 힘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게 해 주셨다. 주께서 내가 침례받을 때 내가 지은 죄와 범법을 용서하셨음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써 나는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나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이러한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아버지의 습관이나 행위가 어떠하든지,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저주하기 보다는 그를 돕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길고 힘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으며, 지상의 아버지와 실제로 같이 함을 내가 여전히 바라지 않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도하고 행하며 모범을 보임으로써 언젠가 나는 아버지 역시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게 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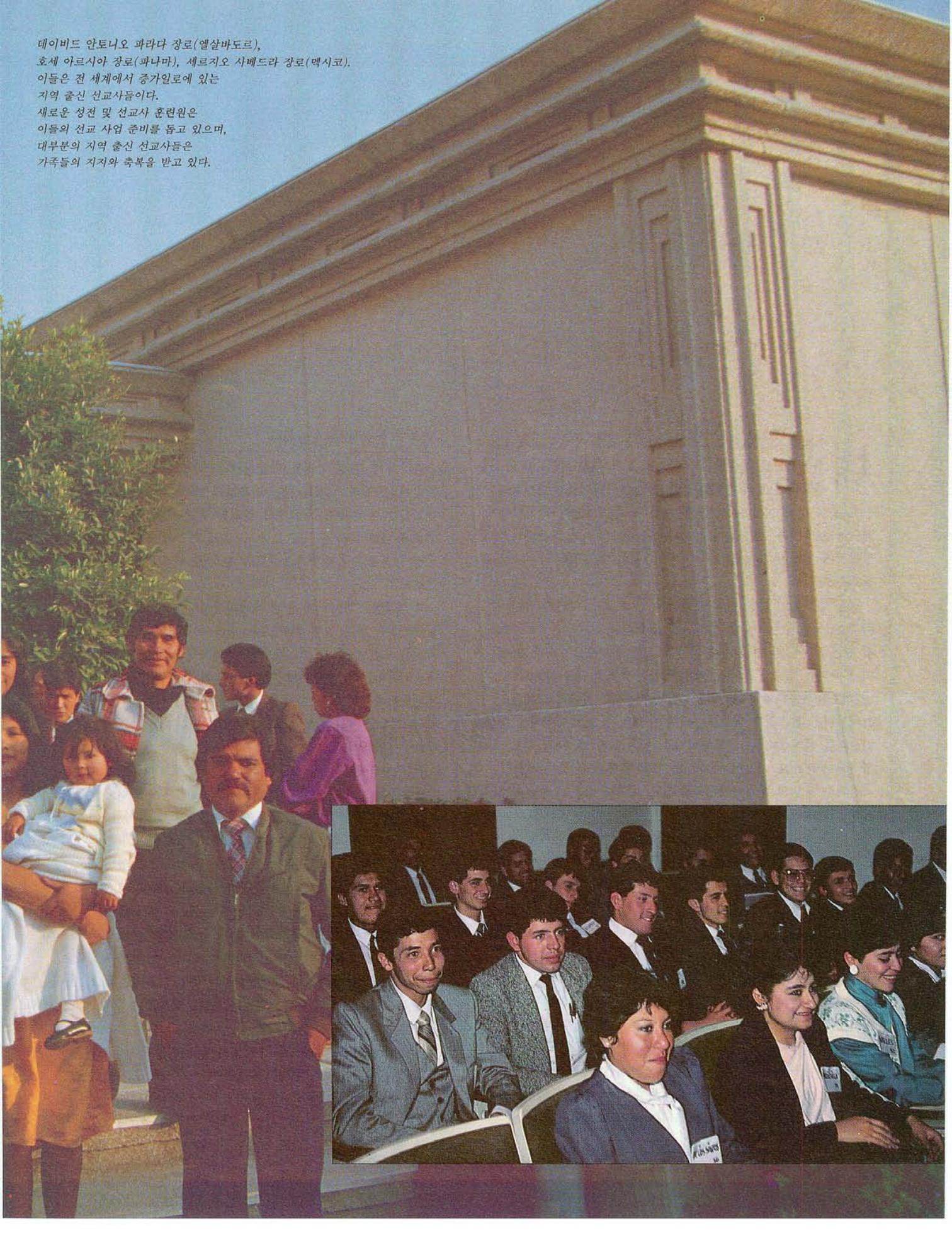
내 나라 국민에게 복음을 전함

마빈 케이 가드너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및 세계 각지 출신의 선교사들



데이비드 안토니오 파라다 장로(엘살바도르),
호세 아르시아 장로(파나마), 세르지오 사베드라 장로(멕시코).
이들은 전 세계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지역 출신 선교사들이다.
새로운 성전 및 선교사 훈련원은
이들의 선교 사업 준비를 돕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 출신 선교사들은
가족들의 지지와 축복을 받고 있다.



데 이비드 안토니오 파라다 장로와 서지오 사베트라 장로는 산살바도르 시내에서 모퉁이를 돌아 이웃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다음 거리로 들어섰다. 어린 아이들끼리 서로 쫓아 다니고 있다. 개가 짖고 있다. 부녀자들이 음식이나 세탁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지나 다닌다. 열려진 창문마다 여러 방송국에 맞춰진 라디오 소리가 울려 나와, 정열적인 라틴 리듬을 들려주고 있다.

마침 장로들이 붉은 집에 도착하자, 노비오스(약혼한 남녀)가 약속 시간에 맞추어 다른 방향에서 도착한다. 그들은 선교사들을 집 안으로 안내한 후 의자를 등글게 고쳐 놓는다. 기도한 후에, 처녀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몰몬경을 가지고 나온다.

“기도하셨습니다?” 파라다 장로가 묻는다. 처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몰몬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들은 니파이삼서 11장을 읽으라는 과제를 냈다. “좋습니다! 계속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신의 능력으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공과는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이다. 파라다 장로는 자신의 불펜을 꺼내어 분해한다. “우리 육신은 이 불펜의 껍질과 같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우리의 영은 잉크가 들어있는 이 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시각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 그는 사망과 부활을 설명한다. 처녀가 질문을 하면, 파라다 장로는 정성껏 표시해 놓은 경전의 성구로 설명한다.

이제는 사베트라 장로가 가르칠 차례이다. 두 명의 선교사들은 그곳이 완전히 자기 집같이 편안한 것 같다.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로 저해되는 일도 없다. 밖에서 옷을 빨고 있던 처녀의 어머니가 들어와 토론의 일부를 어깨넘어 듣는다. 밖에서 수탉이 울기 시작하고, 병아리 한쌍이 열려진 문으로 종종거리며 넘나든다. 열려진 창문으로 가볍게 미풍이 불어와 뒷 방의 문 구실을 하는 커튼을 가볍게 흔든다. 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선교사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어머니가 웃음지으며 다가와 그들과 악수를 나눈다. 그녀는 내일 노비오스와 함께 교회에 가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 장로(엘 살바도르 출신)와 사베트라 장로(멕시코 출신)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1974년에 각국에서 “자국의 선교사를 내보내며, 자국에서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 다른 나라의 일도 도울 수 있게 하라는 부름을 성취한 수 만명의 선교사에 속한다. (성도의 빛, 1974년 11월호, 1~3페이지 참조)

그 이후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그 예언을 실현시키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김볼 대관장이 1974년에 그러한 목표를 주셨을 때는, 멕시코에서 선교사의 25퍼센트만이 멕시코인이었다. 1988년에는 95퍼센트가 본국인이었다. 엘 살바도르에서는, 선교사들이 100퍼센트 중앙 아메리카 출신이다. 인접 국가 출신인 여섯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살바도르인들이다.

전체 지역에서 보면 백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산호세 선교부는 아직 50대 50의 비율이다. “100퍼센트 라틴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하고 머빈 아놀드 선교부장이 말한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틀이 잡혀졌으며, 그 경향은 증가 추세에 있다. 1987년에는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출신의 1,300명이 넘는 형제와 자매들이 선교 지역으로 들어 갔다. 지역 출신 선교사들의 증가로 선교부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 1974년에는, 멕시코에는 선교부가 다섯 개 뿐이었는데, 1988년에는 열 네 개가 되었다. 침례 수는 계속 올라갔다. 멕시코 몬테레이 선교부만 해도, 침례 수가 1987년의 어느 달에 475명에 달했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개종자 침례 수는 지난 해에 40,000명에 이르렀다.

지역 출신 선교사들은 몇 가지 분명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대체로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인 장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한다. 어떤 경우에는, 입국하려는 미국 선교사들을 법적 또는 정치적인 규제로 금지시키는 나라가 있다. 또는 외국인을 보내는 것이 현명치 못하거나 불가능한 곳에서



라틴계 선교사들이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

엘살바도르는 좋은 예가 된다. 1980년에 국가의 정치 문제로 선교부가 폐쇄되었다. 미국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었다. 선교부가 1984년에 재개되었으나, 미국 선교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역 출신의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자체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신이 살바도르인인 프랭클린 헨리케즈 선교부장이 말한다. “이곳 스테이크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순간 모두 보내 줍니다. 또한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봉사하는 살바도르인들도 있습니다.”

개척자 형제들의 본보기

그의 옷차림은 아주 말쑥하다. 그의 흰 와이셔츠도 마찬가지로이다. 엔리케 헤르난데스 장로는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서 과테말라 시트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으로 가기 위해 비행장으로 가는 중이다. 십 삼일 후면, 그는 코스타리카로 돌아와 선교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어째서 그 장로의 가족이 아닌 선교사들이 그를 비행장으로 데려가는 것일까? “나의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나를 비행장까지 데려다 주실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가족을 깨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현재 예순 네 살에 실업자인 그의 부친은 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엔리케와 그의 누이만이 직장을 갖고 일곱 식구를 부양해 왔던 것이다. 이제 그가 가게 되면, 그의 수입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침에 가족을 떠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하고 그는 말한다. “내가 없으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막막해요. 나는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차가 비행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

“나는 개척자 형제들이 보여준 본보기로 강화되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흔히 불우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을 남겨 두고,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나 역시 할 수 있습니다.”

헤르난데스 장로와 같은 새로운 선교사들은 두 주일에 한번씩 멕시코와 과테말라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도착한다. 대개의 경우 그들의 학업과 직장을 중단하였으며, 장학금이나 전문 직책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가족의 축복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지원이나 격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이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회원들이 식사를 제공하여 선교 경비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매일 드는 경비의 삼분의 일조차 내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다. 한 선교부에서 동시에 한 자녀 이상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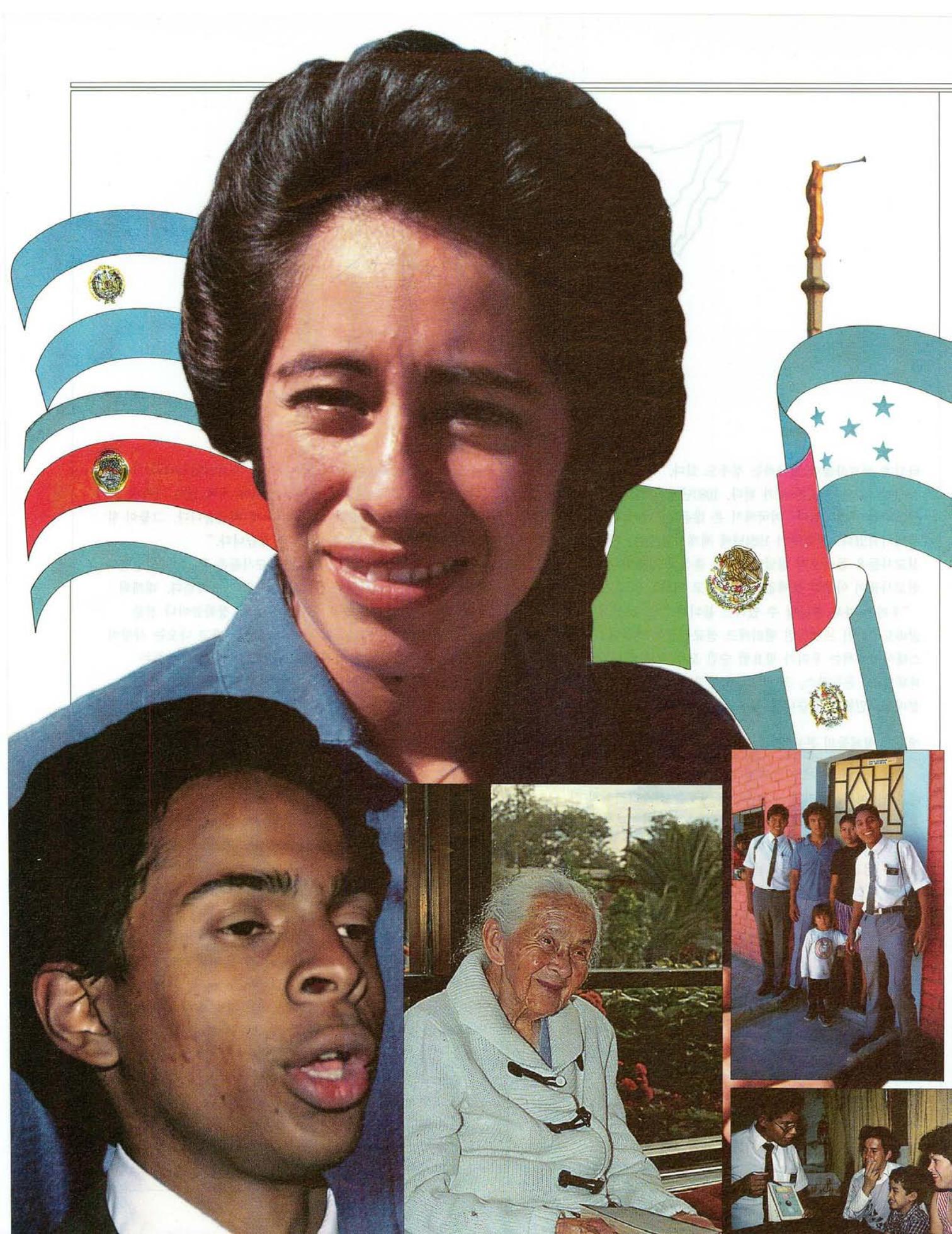
최근의 어느 그룹을 보면, 새로운 선교사가 교회 회원이 된지 평균 오년이었다. 15퍼센트만이 교회에서 태어났으며, 25퍼센트는 회원이 된지 이년이 되지 않았으며, 약 40퍼센트는 부모가 비회원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문에도 그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망가진 파이프 고치는 것을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 아르시아 장로가 웃는다. “아, 자매님, 우리가 크게 도와 드리지도 못한걸요.” 그들이 지난 번 방문했을 때, 그 여인의 여덟 살 난 아들이 보도로 물을 내보내는 앞 마당의 파이프를 부숴뜨렸던 것이었다. 한 시간 후에, 그들은 한 교회 회원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고쳐 주었다. 오늘은, 그 소년이 토론을 하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릴 때 마다, 아르시아 장로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그를 이끌어 준다.

남편과 별거중인 어머니는 공과로 인해 감명을 받는다. 아르시아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공들여 가르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순결의 법과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이십 년 후, 선교사들이 다 간 후에도 이러한 계명을 지키시겠습니까?”하고 그는 묻는다.

“물론입니다.”하고 그녀가 대답한다. 그녀는 이주일 후에 침례받게 될 것이다.

아르시아 장로가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면, 그가 교회 경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실상, 스물 네 살의 이 파나마인은 회원이 된지 일년이 되기 십삼일 전에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왔다.

후에, 선교부장의 미국인 선교사 보조가 코스타리카 선교부에서 아르시아 장로가 하는 일에 대하여 평했다.

“선교부장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지역에 그를 보냅니다.

아르시아 장로는 즐겁게 하고, 많은 토론을 가르치며, 침례를 베풀습니다. 그에게는 우리 외국인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문에도 그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하기에 아름다운 곳

지난 밤에 멕시코, 몬테레이에 우박 폭풍이 몰아쳐, 오늘 아침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진흙탕 길이다. 미리암 소사 자매와 로라 알칼라 자매는 쉼타와 코트를 묶어 썼다.(여기가 언제나 햇빛이 쬐는 곳은 아니다.) 그들은 튼튼한 구두발로 진흙길 속으로 걸어 들어 갔다.

이 두 선교사를 보면 평생 서로 아는 사이같이 생각될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가장 좋은 친구들이다. 두 사람 다 눈을 빛내고 열성있게 말한다. 두 사람 다 말일성도 삼제이다. 두 사람 다 부친이 스테이크 부장이며 형제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선교 사업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열 다섯 번의 토론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주일에 예순 다섯 번도 넘게 토론을 한 적도 있다.

“헌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하고 소사 자매는 말한다. 그녀의 경양은 순수한 것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하고 알칼라 자매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사 자매는 선교사가 된지 여덟 달 만에 쉰 다섯 명에게 침례받게 했다. 대부분이 가족이며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주말에 열 명 이상을 침례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오늘 아침 진흙탕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넘어지는 것에 대해 농담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발걸음을 떼어 놓는다. 그들은 어느 작은 집의 문을 두드린다. 부모는 집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할머니와 세 손녀 딸이 있다. 전구 한 개가 방 안을 밝힌다. 이가 빠지고 한쪽 눈이 먼데다 팔이 아파 불평이 자자한 할아버지는 할 말이 많지만, 그도 역시 귀를 기울이고 있다. 만손녀 딸이 막내를 무릎에 앉히고 있다. 만이와 중간 손녀 딸이 열심히 듣고, 경전을 읽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다. 마지막에 한 소녀가 기도한 후, 선교사들은 부모가 집에 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다.

흙탕 길이 더 심하다. 이제 그들은 들판을 건너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다. 그들은 다음 곳을 둘러 다른 토론을 가르친다. 그 후, 어머니가 공과를 하는 동안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것이 참됨을 자매님의 마음 속에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하고 알칼라 자매가 말한다. 그 가족은 일요일에 교회에 오기로 약속한다.

거리로 다시 나온 자매 선교사들은 그들의 기쁨을 표시한다. 흙탕 길 모퉁이를 돌아가며, 소사 자매는 소리친다. “이곳은 정말 일하기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페나로사 자매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다. 해마다 그녀는 이 소망을 감독에게 표했으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드디어 그녀는 선교부장 보조를 몰아 세워 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했다. 그들은 선교부장에게 전화를 했다.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선교사들은 그들의 생활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강화되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파테말라, 케잘테낭고의 블랑카 에밀리아 그라마호 자매가 집을 떠나 코스타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부모도 교회에 가입했다.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장벽이 되지 않는다. 후아니타 페날로사 자매(멕시코)는 103세인데 “여름 선교부”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자매님이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나이입니다. 현재 103세이십니다!”

엔리케 모레노 선교부장은 그 할머니를 접견하여, 건강하고 유능한 자매 선교사를 동반자가 되게 하여, 집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프에블라에서 두 달 간의 “여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다. 그곳의 와드 회원들은 그녀를 사랑했으며 할머니 선교사가 그들의 친구들을 가르치기를 갈망했다. “그 자매님은 선교 사업에 큰 축복이 되셨습니다.”하고 모레노 선교부장은 말한다. “그 자매님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헤스타 마나나!”

에두아르도 로페즈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한 달 전에 몬테레이에서 집을 잘못 찾아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멘도사 가족이 그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표명했다. 멘도사 자매는 십 년 전에 침례를 받았으나 남편의 뒷받침이 부족하여 그 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의 남편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와 두 자녀는 침례를 받았다.

토론하는 중에 이웃에 사는 세노라 헤르난데스가 왔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과 두 자녀도 침례를 받았다. 다른 이웃 사람인 세노라 로페즈도 그간의 경위를 들었다. 그녀의 다섯 명의 자녀와 조카도 침례를 받았으며, 그녀의 남편도 차츰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집을 잘못 찾아 대문을 두들임으로써 로페즈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이제까지 열 네 명을 모두 한 달 안에 침례해 주었으며, 그 후에도 더 많은 사람이 침례받게 될 것이다.

가장 최근에 침례를 준지 일주일도 안된 오늘 아침, 장로들은 헤르난데스 가족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헤르난데스 형제는 의자에 앉아 로페즈 장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다.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우리 아들 만큼이나 사랑합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가 장로들을 만났을 때 실직 상태였으나, 그들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며, 그 다음 주 그는 석유 회사에 직장을 얻게 되었다.

그들이 말할 때, 다른 식구들이 들어 와, 조그만 거실을 가득 채운다. 그들이 서로 껴안으며 웃음으로 인사를 나눌 때, 누군가가 침례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세기 시작한다.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함성이 올라 간다. “저분도

침례받은 분이예요!” 그들은 이웃 사람들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침례주는 것에 대하여 농담을 나누며, 일년이 되면 함께 성전에 가자고 이야기 한다.

로페즈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가두 전도를 거의 하지 못한다. 그들은 거리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 얼마 안되어 그들에게 토론을 가르친다. 집 앞에 나와 신문을 읽는 사람을 보면 곧 그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차를 닦고 있는 사람만 보아도 그에게 교회를 소개한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의 집에서 자매와 어린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들을 가르친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한 가족 일곱 식구를 침례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리에서 그 자녀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문가에서 ‘안녕하세요. 장로님!’ 하고 인사를 하면 그 부모를 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나는 밤에 기진맥진해서 집에 도착하게 되므로 나의 일지는 대부분이 상당히 짧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짧게 씁니다. ‘나는 상당히 지쳐 있다. 오늘은 멋진 날이었다. 우리는 훌륭한 가족을 만났다. 우리는 열 두 개의 토론을 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선교 사업에서 배웠습니다.”

늦은 시간이다. 집회소는 비어 있고 어둡다. 그러나 스테이크 부장의 사무실 안에 있는 빛은 아직도 켜져 있다. 몬테레이 모델로스 스테이크의 아들포 스테이크 부장은 스물 세 살 밖에 되지 않았다. 한 보좌는 서른 한 살, 다른 보좌는 스물 다섯 살이다. 모두 귀환 선교사들이다.

그들이 선교 사업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고”, 이바라 부장은 대답한다. “봉사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도력을 배웠다. “내가 구역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전에는 한번도 점전을 실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한 것은 세 시간 동안 계속 되었어요!”하고 그는 웃음 짓는다. “그러나 나는 곧 배웠습니다.”

제일 보좌인 아들포 레이에즈는 스무 살 때 침례를 받았다. 일년 뒤에 그는 선교사가 되었으며 18년 동안 지구 책임자로 일했다. “우리의 스테이크 부름도 선교 사업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만, 우리의 시간은 지금도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나는 개종자입니다.” 파블로 모레노 제이 보좌가 하는 말이다. “내가 주님과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은 모두 선교 사업에서 배운

것입니다.”

스물 아홉 명의 선교사들이 현재 이 스테이크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바라 부장은 선교사의 가족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아 왔다. 비회원 부모들이 침례를 받고 활동이 저조한 부모들이 교회로 돌아와 성전에 갔으며 어린 형제 자매들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가족들은 훨씬 더 단합되고 더욱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귀환 선교사들은 성전에서 결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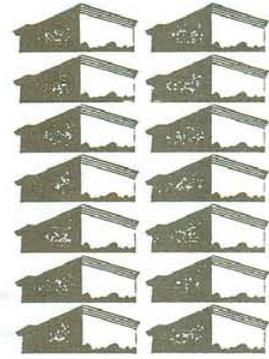
“선교사들이 해임되면,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부름을 줍니다.”하고 이바라 스테이크 부장은 말한다. “한달 전에 어느 자매가 귀환했을 때, 우리는 그녀에게 스테이크 청년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비행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서 내가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부름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선교사 해임 접견을 받으면서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하고 모레노 형제는 말한다. “잠시도 설 사이가 없었고,” 그는 웃으며 말한다. “지금도 없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파라다 장로와 사베드라 장로는 약혼한 남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거리를 걸어 내려 간다. “두 사람이 짝지어 함께 일하는 장로들의 모습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들의 선교부장은 후에 그렇게 말했다. 파라다 장로는 농부의 아들로 배경이 극히 보잘것 없고, 그의 후임 동반자인 사베드라 장로는 엘살바도르 주재 멕시코 영사의 아들이다. 선임자는 선교 사업을 할 돈을 모으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일을 했고 후임자는 차와 스테레오를 남겨 놓고 왔다. 이제 그들은 겸손하고, 자신에 차 있으며,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할 줄 아는 팀이 되어 있다.

그들은 흔들리는 다리 위로 협곡을 건넌다. 그런 다음, 모퉁이를 돌아서, 산살바도르의 다른 이웃 지역에 있는 다음 거리를 올라가기 시작한다. *



선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지역 선교사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지역 선교사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 십년 동안에, 그 수는 3,850에서 10,608까지 거의 세 배가 되었다. 현재 봉사중인 35,000명의 복음 선교사 중에서 거의 삼분의 일이 미국이 아닌 71개국 및 6개 자치령 출신이다.

그 외에도, 선교사 훈련원의 수가 증가되었다. 지난 십년 동안에, 그 수가 하나(유타주 프로보)에서 열 넷으로 증가되었다. 그것은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영국, 과테말라,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사모아, 통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훈련원은 모두 성전 가까이 위치해 있어, 먼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전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교사 훈련과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코스타리카 산호세 출신인 엔리크 헤르난데스 장로와 카를로스 레이에스 장로가 과테말라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다. 선교사 훈련원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서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목적 : 자매들에게 온전함을 추구하도록 권고함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그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온전해지도록 명하셨다. (마태복음 5:48; 니파이삼서 12:48 참조) 그러나 이 계명은 위압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어떤 교회 회원들은 좌절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길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화로움을 더욱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로나이이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모로나이서 10:32)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마음의 고통중에도 평안과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짐을 더 쉽게 질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들의 짐을 지는 것을 더욱 잘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2; 모사이아서 18:8~10, 24:14~15, 21; 엘마서 33:23 참조)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본보기를 통해 완전해지고자 애쓰는 가운데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주님은 그에게 “힘과 수단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라”고 권고하신 적이 있다. (교성 10:4)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닌 힘과 수단 이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지금 당장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기 위해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고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말씀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아무도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주 예수만이 이 상태에 이르렀으니, 그는 우리들 중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1976년 올해의 영적인 말씀, 프로보: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사, 1977년, 399~400페이지)

어느 와드에 속한 몇몇 사람들은 “온전한 하루”를 살라는 감독의 권고를 받아 들임으로써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배웠다. 어느 젊은이는 경전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더욱 밝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부부는 몸이 아픈 와드 회원들을 방문하는 데서 큰 기쁨을 맛보았다. (성도의 벗, 1989년 4월호, 10~14페이지 참조)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한 번에 조금씩 완전에 이른다.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오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여, 내일은 좀더 많이 지키게 되고, 은혜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 사다리 층계를 딛고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영육을 향상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게 됩니다.” (같은 책, 400페이지) 즉 오늘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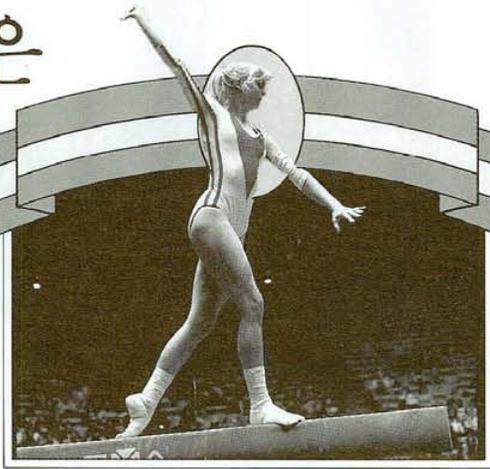
방문 교사를 위한 제안

1. 니파이이서 31장 19~20절을 읽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지 토론한다.
2. 보다 온전하게 계명에 따라 생활할 줄 아는 방법에 대한 예를 들고 방문하는 자매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권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 7~19 및 48~63페이지에서 관련 자료 참조)

다시 찾은

챔피언



켄드라 키슬 페어

체조 경기장 안에 눈길을 모으던 관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한 소녀에게 쏠려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앞서 행해졌던 평균대에서도 관중들의 시선을 모았었다. 이번엔 그녀는 이단 평행봉 경기를 하고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다이안 엘링슨이었고, 열 다섯 살의 가느다란 몸매와 금발의 머리를 뒤로 묶은 전형적인 체조 선수의 모습이였다. 하지만 관중들은 그녀의 예쁜 모습보다 더 돋보이는 어떤 것을 느끼는 듯했다.

아마도 관중들은 그녀가 마루 운동을 하면서 자신있는 모습으로 피루에트(발끝으로 돌기)를 연기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또는 이단 평행봉 연기 때 몸을 틀며 회전해서 착지하는 멋진 광경, 힘도 안 들이고 땀에서 도약하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 중에서도 관중들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사랑이 더욱 그들을 매료했을 것이다. 그녀가 규정 종목을 완벽하게 연기한 뒤 자신감에 찬 미소를 관중들에게 살짝 보일 때 그들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녀가 연기를 것처럼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도 그녀는 그와 같은 미소를 지었다. 공영 TV방송이 촬영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과정의 착지때에 미끄러지며 얼굴이 바닥에 닿았을 때도

그녀는 관중들이 박수를 칠 때까지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열 여덟 살 생일날에 행해졌던 대회에서 다이안은 심판들에게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며, 관중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부탁해 달라고 청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주의를 끌기 위해 두 번 불러 달라고 할걸 그랬어요.”

다이안은 어렸을 때도 관중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다. 아홉 살 되던 어느날 다이안은 학교에서 돌아와야 할 시간에 집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 나섰는데, 찾고 보니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 싸여 텀블링 체주를 부리며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다.

다이안의 언니 마리는 다이안이 어린 시절에 하던 것을 회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희 가족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이안이 항상 앞에 있어요. 그애는 늘 두드러지게 보이려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든지 사진을 찍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다이안도 함께 찍혔어요.”

체조 경기장에서 완벽하게 연기하고자 하는 열망은 다이안이 평생 추구하는 또 다른 면이었다. 자신이 체조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부모에게 설득시키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그녀는 남보다 더 노력해야 했다.

노아르틀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일곱이나 되었기 때문에 다이안의 교습비를 낼 형편이 못되었어요. 다이안은 직접 체육관으로 찾아가서 교습비를 내는 대신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코치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연습이 끝나고 나면 교습비를 위해 진공 청소기로 매트 청소도 하고 화장실 등 체육관을 청소했어요.”라고 마리는 당시를 회상했다.

다이안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망은 그녀의 체조 선수로서의 자질과 쉽게 결합되었고, 이 둘은 챔피언이 되는 조화를 형성했다. 그녀는 열 네 살 때부터 체조를 시작했는데, 경쟁 시험의 기준에서 보면 늦은 시작이었지만 일 년도 안되어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와 맞서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국내 주니어 올림픽 챔피언이 되었고, 대학교 때는 유타대학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최초로 국내 우승팀으로 이끌었다.

대학 선수로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국내 프로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이안은 체조 선수로서의 생명이 거의 끝난 것을 알았지만 가능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기쁨과 운동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

그 여행을 위해서 훈련하는 중 다이안은 수 천번도 더 해 왔던 뽀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때처럼 뽀뽀를 향해 달려 나갔다. 그녀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도약대를 박차고 뛰어 오르며 뽀뽀를 넘었다. 항상 하던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는 몸을 약간 멀리 회전시켰다. 이번에는



착지하면서 목이 부러졌다. 이 사고로 그녀는 거의 육개월 동안 입원했고 나머지 생애를 휠체어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것은 1981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다이안은 체조를 못하는 생활을 상상해 보려고 애쓰며 그해 크리스마스와 다음 5개월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참으로 여러 해 동안 스포츠를 사랑해 온 그녀로서는 적응해 나가기 어려웠다.

“난 병원에 있는 것이 지겹고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안은 말했다. 그녀가 병원에 있던 5개월 중 한달 동안 다이안은 교정대에 누워서 간호원이 두 시간마다 와서 몇 센치씩 움직여 줄 때 외에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다이안은 자신이 것처럼 오래 병원에 있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사실 처음에 내가 다쳤을 때는 한달 후에는 돌아와 여행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어요. 나는 만일 내가 마음 속에 충분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회복은 생각대로 쉽지 않았고,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지겨운 환자였어요.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안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불행했어요. 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없었어요.”라고 다이안은 당시를 설명했다. 드디어 다이안에게 변화의 전기가 왔다.

“어느 날 나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다이안이 말했다. 그녀는 신권 축복을 요청했다. 그녀는 병고침의 권능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고침이 있으리라는 것을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받았고, 가장 큰 평안을 느꼈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상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일 내가 병원을 걸어서 나갈 수 없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복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노력해 왔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병자 축복을 받을만큼 합당하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완전하게 위안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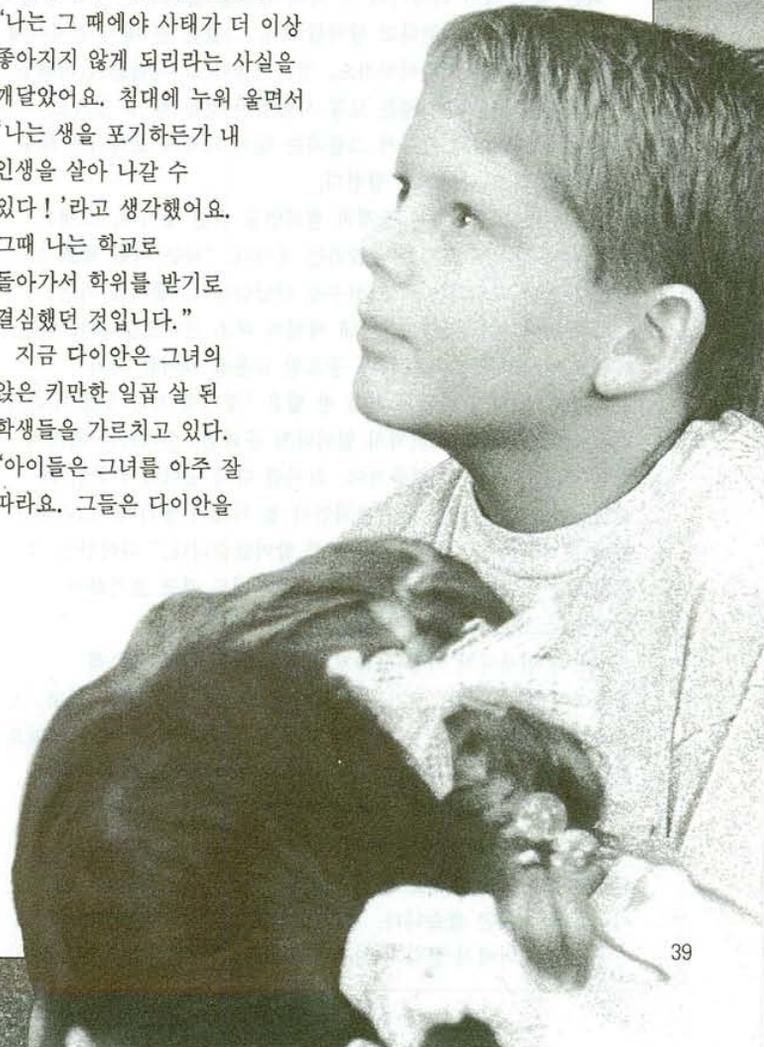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녀가 회복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체조였다. “만일 내가 체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에요.” 그녀는 말한다. “내가 체조 선수 시절에 나는 스스로 치료해야 할 심한 상처를 여러 번 입었어요. 체조 경기에서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내리막에서 일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체조 경기는 나에게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이안은 결국 자신이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날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녀가 연기하는 모습을 찍은 갖가지 사진과 기념품으로 가득 채워진 스크랩북을 보고 있었다. 눈물이 떨어져서 스크랩북에 번졌다.

“나는 그 때에야 사태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침대에 누워 울면서 ‘나는 생을 포기하든가 내 인생을 살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나는 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를 받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이안은 그녀의 얇은 키만한 일곱 살 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그녀를 아주 잘 따라요. 그들은 다이안을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마리가 말했다.

다이안의 학생들만이 그녀의 팬이 아니다. 그녀는 노변의 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기도 한다. 그녀의 메시지에서 과거를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을 수 없으며 희망과 인내로 가득차 있다.

그녀의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경기장 안을 꽉 메운 관중들을 때려시키던 생기 발랄하고 행복한 소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제 그녀의 매력은 다른 청중들에게 발산되고 있다. 그녀의 음성은 방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는 듯이 퍼지며 자신의 웃음 소리로 이야기가 자주 끊긴다.

“나는 체조 경기 이야기와 그 밖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곧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청소년들이 그 사실을 인식해도 내가 그들과 공통점이 많은 보통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지요. 비록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들과는 많이 다르게 보이기도 해도 말입니다.”라고 다이안은 말한다.

그녀의 주요 메시지는 장애의 챔피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어린 체조 선수 시절에 낸시 티스라는 체조 선수를 만났습니다. 낸시는 미국 올림픽 팀에 속해 있었고, 국내 제일의 체조 선수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낸시가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처음 한 말은 ‘경기에 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아요. 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포기자나 패자가 되어 결코 승리할 수 없을거야.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한번 더 시도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챔피언이 될 차례가 될거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다이안은 그 충고를 기억하고 아무리 많이 쓰러진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심하게 쓰러진 일을 당하자 특히 휠체어에 앉게 되자, 포기하지 않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체조 선수였을 때는 언제든 이단 평행봉 위에서 연기를 할 때나 재미로 물구나무를 설 때나 유일한 두려움은 장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체가 마비되거나 앓을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휠체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휠체어를 탄 사람과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휠체어에 탄 사람들을 피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들과 너무 가까이 하면 내 생애도 휠체어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휠체어에 타게 될 경우를 준비시켜 준 것 같았습니다.” 다이안의 말이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준비시켜 준 것은 다이안의 불굴의 의지였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재미나는 이야기와 영원한 삶의 중요성 및 모든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용하고 강한 간증에 분명히 들어있는 의지였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그녀보다 더 강한 간증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으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그녀는 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어요.”하고 마리는 말한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방안에 불빛이 꺼지고 슬라이드가 장난을 좋아하는 체조 선수 다이안의 얼굴을 빠른 템포의 현대 음악과 때를 맞추어 화면에 비추어졌다. 다이안이 이야기를 마치자 어린이들이 열광적으로 그녀를 에워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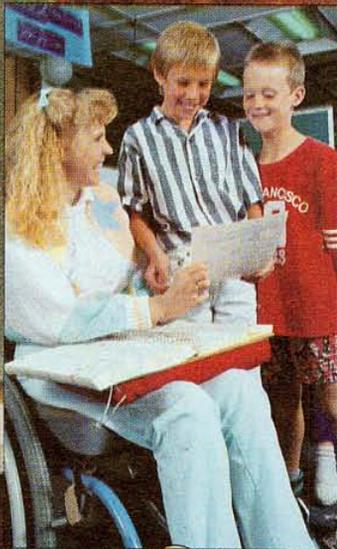
다이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내게 말할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은 어떤 소녀가 다가와서 내 이야기를 네 번이나 들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자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두번째는 낙제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세번째는 자기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기로 했고, 마지막에는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이안은 누군가 그녀에게 아름답다고 말을 하자,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웃었다. 그녀는 숙달된 연기자 답지 않게 약간 수줍은 모습조차 띄었다. “사람들은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와 같은 불행이 닥치면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말할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말은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처하게 된다 해도 그 삶을 받아 들이고 극복해야 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가족 중 누가 죽는다 해도 참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목이 부러진다면 그 상태로라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라는 사실을 배워야 해요. 기적을 바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단지 다이안 만큼만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챔피언이 될 차례가 올 것이다. 다이안에게 그 승리는 특별히 감미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잃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챔피언이 된 것이다.*



다 이안은 자신에게
 흥미를 가진
 십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많이
 있다. 그녀는 희망과
 인내의 메시지를 전하며,
 일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그녀는 말한다.



불친절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3:8~10 참조)



지도력에 관한 메시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교성 115 : 5) 세상의 빛이 되고 타인의 모범이 됩시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이제 나는 예언자들이 왜 주님께서 이 말일에 몇몇 그분의 선택된 아들과 딸들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여러분이 그것을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도록 부여 받은 여러분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에 비례해서...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팽창되며 움직여 갈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예수께서는 그가 누구였으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불확신과 약함으로가 아니라 강한 힘으로 인도할 수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젊은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준비를 하도록 도우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부름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루스 에이취 펑크, 전 본부 청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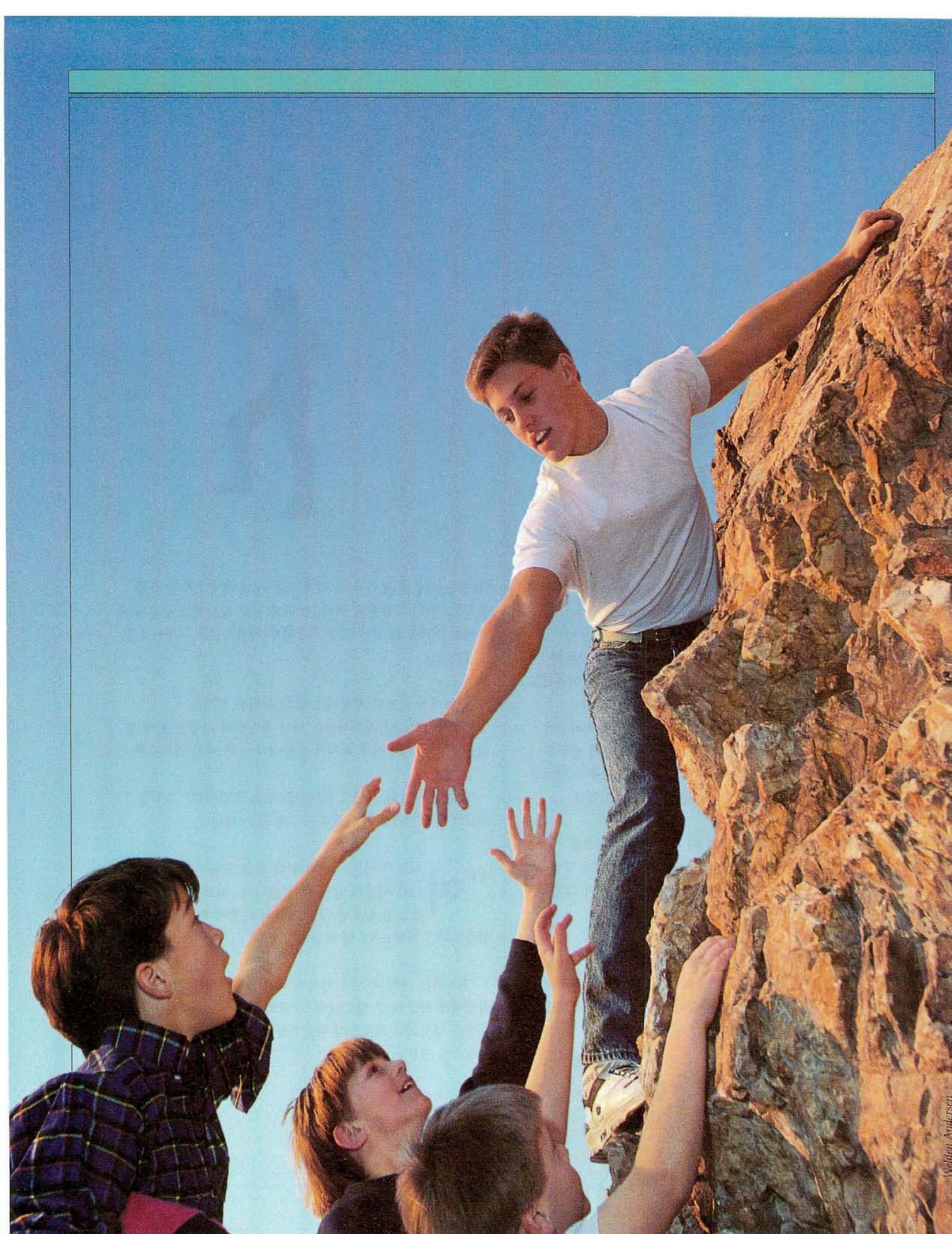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태복음 5 : 14~15)

“교회에서 가르친 성실과 노력의 위대한 원리로 말미암아...청소년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감탄을 받게 될 젊은 세대를 성장시킬 위치에 있습니다.”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순종은 노예의 표상이 아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력의 으뜸가는 자질입니다.” 앤 엘돈 테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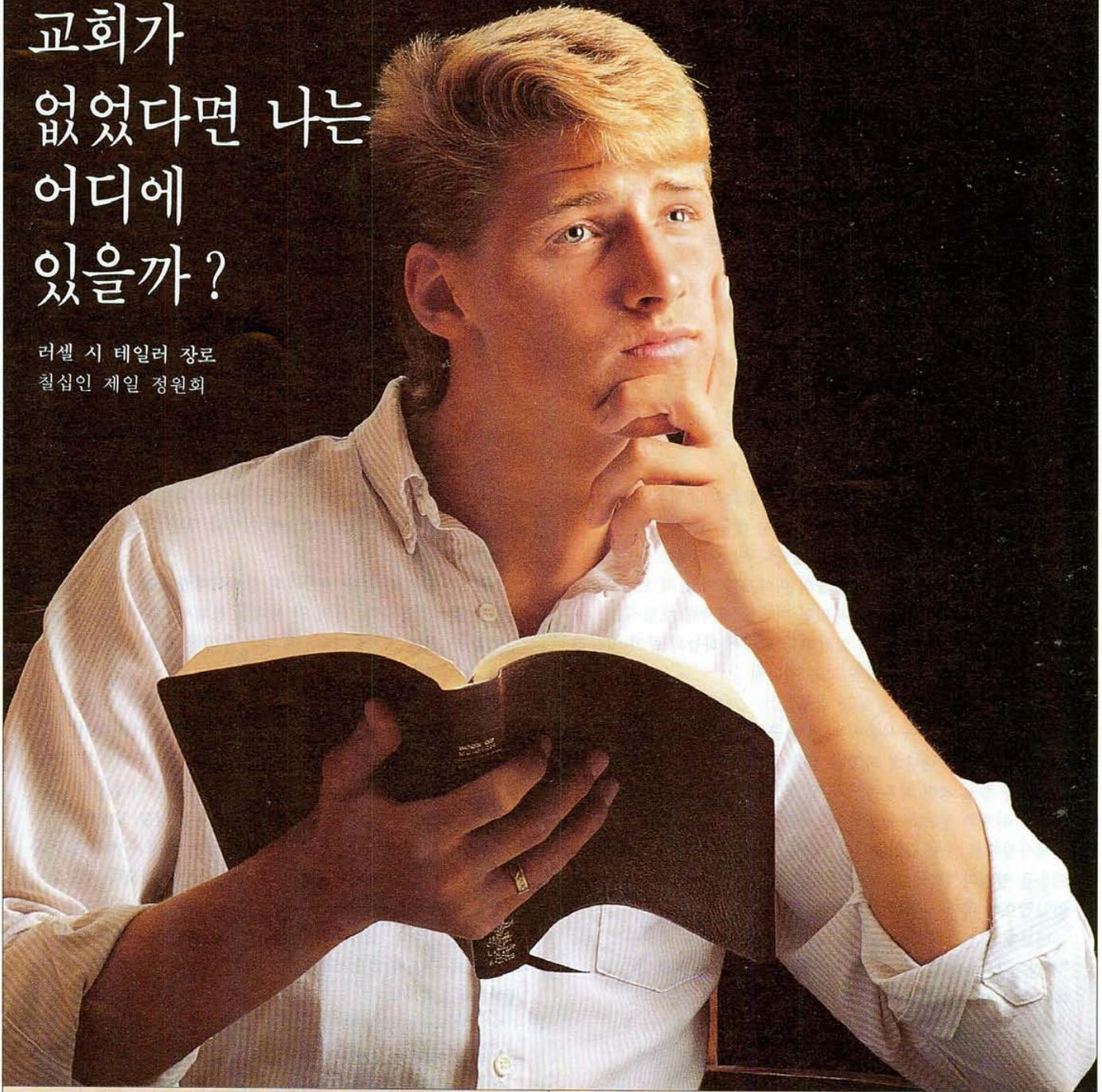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지 않으면 그를 이끌어 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불타 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지도자는 자기 자신이 기꺼이 하지 아니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의로움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러셀 시 테일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내가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날 나는 선교부 순회 방문과 지역 대회를 위해 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아일랜드 더블린 선교부장단 제1보좌인 존 오파넬 부장이 말씀 도중 매우 흥미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여러분의 생활에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며 다음과 같이 가정했습니다. “만일 이곳 아일랜드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함당하지 못한 대화나 나누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것과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 가며
인생의 결정 사항을 위해 인도하심과 영감을
받을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질문을 스스로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복음이 있고 복음이 주는 구속의 힘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은 생활을 변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경전에는 복음의
영향으로 생활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세주를 따랐던 멸시받던 세리인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가 주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늘의 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했다면 그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9:9 참조)

다수스의 천막 장수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그 운명적인 날에
주님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스테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웃을 듣고,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똥똥하여”(사도행전 9:1 참조)
대제사장에게 나아 갔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의 분노와
미움을 열망과 헌신으로 바꾸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디에
있었겠으며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마 4:18~22 참조)가 되라는 부르침에
따랐습니다. 이들이 이 부르침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의 부르침에 응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미나 크레스린스라는 이름의 사랑스런 자매의 개인적인 간증을
들려 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영국의 허들스필드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녀는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유대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화란의 전쟁 기간중에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종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원망스러웠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후 1983년 10월 초 그녀의 딸 카아라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아라는 복음에 차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곧이어
개종하였습니다. 그녀는 침례식에 어머니 미나 크레스린스를
초대했습니다.

“내가 영을 느낀 것은 카아라의 침례식때였어요. 그것은 매우
홀륭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것처럼 아름다운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영은 충만한 기쁨을 경험했고,
나는 그 일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크레스린스 자매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르친 것은 영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요셉
스미스와 회복에 대해 가르쳤을 때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영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교회가 참되며 내가 이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침례 받던 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는 거의 거룩할 정도로
깨끗함을 느꼈어요.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는 홀륭한 느낌을
받았어요. 기뻐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결국 제 마음에는 전쟁
기간 중의 공포와 혐오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식과 위안이
찾아왔어요.”

“이제 나는 이 홀륭한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니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음속에 아무런 고동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미나 크레스린스는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복음이 없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하고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1944년 초 훈련 캠프에 참여해 최초로 외출했을 때 해군
친구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나의 해군 동료들은 나에게
문신하고 술마시고 여자를 찾아 가는 일에 그들과 합세하여
남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 부대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였으며 그들과 떨어져 혼자 쓸쓸하게 장병 휴게소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다음날 나는 교회 예배 모임을 찾아가 유타주 프로보 출신의 외로운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 준 교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고 또 귀향하여 한결같이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나에게 영원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책, 잡지, 영화, 텔레비전 등 어디에서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신감주”(에베소서 6:13~17 참조)를 입어야만 악마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주를 입으십시오. 그것을 입는 모든 사람들을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신감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방패이며 참으로 의의 가슴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외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찾아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늙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사나 월계반, 교사나 장미반, 집사나 꿀벌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세상에 다시 주어진 것은 열 다섯 살 된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려 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교성 18:10 참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익혀 유익한 종이 되도록 합시다. 세상이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세미나리 반에서 얻은 영적인 힘으로 그것을 받쳐 주십시오. 찾은 다음 봉사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바람, 장점과 단점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빨간 코트

비바 메이 갬멜 윌콕스

“도 대체 내가 왜 그들 몰론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들었을까?” 요한나 앤더슨은 배가 발 밑에서 거칠게 흔들거리자 이런 생각을 했다. 항해는 순조롭지 못했으며, 오늘은 특히 험난했다. 배에 탄 그녀가 아는 사람들 중 병이 안 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도대체 이 여행은 왜 이처럼 멀고 험해야 하는거지?”라고 생각하자 그녀의 신앙이 꺾이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녀는 자상하신 부모님과 함께 포근한 스웨덴의 집에서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1800년대 초기에 말일성도 선교사들에 의해 개종하였으며, 가족들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다. 큰 아들 닐즈가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았을 때, 그의 부모님들은 열 네 살 된 요한나를 팔려 보내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결정했다.

요한나는 어머니가 딸의 트렁크를 챙기며, 맨 밑바닥에 비밀 꾸러미를 숨겨 놓은 어머니의 자상함이 생각났다. “요한나, 내가 집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거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면 네 트렁크 바닥에 있는 꾸러미를 펴봐라. 그것이 너의 영을 기쁘게 해주며 내가 유타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을 줄 것이다.”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요한나의 영은 확실히 떨어져 있었다. 심한 폭풍우에 시달려서만은 아니다. 삼개월간 여행하면서 먹을 식수마저 상해 있었다. 많은 여행자들이 심하게 병이 들었고, 심지어는 죽어서 바다에 장례한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도 지금이야 말로 어머니가 챙겨 보낸 꾸러미를 열 시기인 것



Craig Dimond

같았다.

그녀는 짐이 실려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의 트렁크를 찾아 열고서 그 특별한 꾸러미를 더듬어 찾았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그르 고였다. 그것은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빨간 코트였다. 어머니는 아마 그 옷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그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옷을 감싸 입고 향홀해서 가볍게 춤을 추었다.

오랫동안 이처럼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요한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코트를 배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다시 생각을 했다. 이것은 자기만의 비밀이었다. 이 빨간 코트는 유타에서 입기 위한 것이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날 그녀는 이 옷을 다시 입을 것이다. 요한나는 조심스럽게 코트를 트렁크에 다시 넣었다.

요한나는 아름다운 비밀을 알게 되자 나머지 여행을 하는 데 용기를 얻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을 때도 요한나는 시장기를 느꼈다. 그녀는 배의 요리사와 친하게 지냈으며, 그는 요한나가 좋아하는 스웨덴 팬케익을 만들어 주고는 했다. 요리사는 요리를 하면서 요한나의 무릎 위에 내용물을 섞는 큰 그릇을 올려 놓고는 했다.

삼개월간 여행한 끝에 배가 미대륙에 도착했다. 앤더슨 가족은 삼개월을 더 여행해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해서 평원을 횡단하는 여행을 위한 집마차와 소떼, 그리고 식량을 구입했다.

닐즈와 그의 아내가 마차를 몰고 요한나는 걸어갔다. 요한나는 어리지만 튼튼했고 새들과 들짐승들이 있는 황야를 좋아했다. 매일 그녀는 새로운 풍경을 보며 놀라고 흥분했다. 때때로 저

멀리 우호적인 인디언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걸어가면서도 항상 트렁크 속에 들어 있는 부드럽고 예쁜 빨간 코트의 비밀을 떠올리며 유타의 새로운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그 옷을 입을가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여행하는 개척자 일행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대적인 인디언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요한나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다. 드디어 저녁이 되자, 일행의 대장은 마차를 둥글게 모아 빈틈없이 원이 되게 했다. 가족들은 모두 원 안에 가두고 다른 날



밤에 하던 캠프 파이어와 음악이나, 춤도 일체 없었다. 성도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고 조용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요한나는 오랫동안 걸어 지쳐 깊은 잠에 빠졌다. 새벽녘에 사람들의 목소리와 말 발굽 소리에 깨어났다. 새 언니가 그녀에게 조용히 누워 있으라고 말했다. 오빠 닐즈는 잠자리에 있지 않았다.

음성이 점점 가깝고 크게 들려 오자, 요한나는 그들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개척자들이 인디언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 위에 있는 마차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요한나의 어머니는 딸의 실망어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쁜 코트를 보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것은 모든 개척자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들었고, 마차 구석에 있던 그녀의 트렁크가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닐즈가 인디언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말소리가 사라지더니 남자들이 마차에서 뛰어 내렸다. 요한나는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닐즈가 돌아와 요한나를 마차 앞으로 데리고 가며 말했다. “요한나, 여기 가만히 있거라. 뒤돌아 보거나 마차 뒤 쪽으로 가지 말아라. 네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실 것이다.”

요한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뒤돌아서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 보았다. 그들은 안장도 없는 조랑말들을 타고 한 줄로 달려가고 있었다. 인디언 병사들의 선두에 가는 사람은 추장 워커였는데 그는 고향을 치며 최고 속도로 말을 몰고 갔다. 그의 어깨에는 요한나의 아름다운 빨간 코트가 걸쳐 있었다.

닐즈는 누이 동생을 끌어 안았다. “요한나, 네 코트가 너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했어. 밝고 빨간 색깔이 추장 눈에 들었어. 네 코트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서 우리 모두를 해치지 않고 버려 둔거야.”

앤더슨 가족은 곧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고, 후에 요한나는 덴마크 출신 개종자인 제임스 한센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열 명의 자녀를 가졌으며, 그 후손들은 아직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요한나의 빨간 코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비바 메이 캠벨 윌콕스는 요한나 앤더슨의 증손녀이다.

